

만남

03

2021

통권 565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잠비아 영락크리스천스쿨 첫 졸업식 거행

아프리카 잠비아 영락크리스천스쿨 7학년생 74명의 첫 졸업식이 작년 12월 19일 잠비아 은돌라시 외곽 치푸루쿠수 현지에서 있었다. 우리 교회 안수집사로 섬기다가 2012년 전문인 선교사로 파송 받은 김서영 선교사 부부가 잠비아 현지의 고아와 장애아, 극빈 아동들의 무료교육을 위해 2014년 설립한 잠비아 영락크리스천스쿨은 복음과 교육의 불모지인 잠비아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해왔다. 2015년부터 잠비아 최초의 어린이 교회인 잠비아 영락어린이 교회를 설립하여 섬기고 있는 김 선교사는 잠비아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과 선교의 공로를 인정받아 '2017 한경직목사기념상'을 수상했다. 2022년부터는 국제NGO 단체인 국제기아대책기구(FHI) 아프리카 지부가 김 선교사의 현지 사역을 이양 받아 빈민 아동들을 위한 '떡과 복음'의 사역을 계속 해서 펼치게 된다. (관련기사 30~33면)

교회표어

눈을 들어 발을 보라
(요한복음 4:35)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공의의 실현

5대 본질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십자가 앞에서 김운성

사순절 특집 04 사순절의 참된 의미 김정희
06 부활, 수난의 시간을 묵상하며 박선이
10 사순절의 영적 독서 이강학

영락칼럼 13 34번째 민족대표 스코필드 박사 김학천
18 팬데믹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 이영선

다음세대 20 교육부장 정천우 장로 인터뷰
24 간절한 소망을 먼저 찾으세요 김성문
26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 채나현
28 교실 수업 못해 본 20학번 1학년! 최연우

땅끝까지 이르러 30 잠비아 영락크리스천스쿨 첫 졸업생 배출 김서영
34 눈을 들어 발을 보는 제2남선교회 임우섭
36 충성!! 제2여전도회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강신재
38 비대면 시대 ‘전도의 기술’ 류화정

영락의 울타리 41 아침 단상 양지청
42 선택과 우연의 연속에서 윤형배
44 작은 한 뿌리 내리게 하신 주님 유혜정
46 ‘일진’ 뼈따이를 예배로 부르신 주님 차안톤
48 자원봉사는 “예수사랑·교회사랑”입니다 최재선
50 눈을 들어 사회의 발을 바라보면서 박남진
52 커피 알고 마시기 문병수
55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영성 교육 김재호

문화광장 56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최한윤
58 통계로 본 2020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59 온택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 안동현
62 채찍에 맞는 그리스도 김갑수

교회소식 63 2021제직부흥회 외
65 2021년 온라인 교육 안내
68 편집장 레터

표지설명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형상화 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장차 임할 천국잔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림 노완희 은퇴권사(영락미협)



김 운 성 위임목사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14)

찬송가 151장을 불렀습니다. 1절 가사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별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후렴 가사였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 가사를 보는 순간, 십자가를 처음 본 것이 언제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언제 처음 보셨습니까? 아마 그때를 기억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닌 분들은 너무 어렸을 때부터 십자가를 봐 왔기 때문에 기억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길거리

를 지나며 별생각 없이 곳곳에 서 있는 예배당의 십자가를 봤을 것이므로 언제 십자가를 처음 봤는지 떠올리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 보려 합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처음 안 것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에 다닌 분들도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시절, 혹은 그 이후 청년 시절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때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당 종탑의 십자가를 바라보던 분들도 어느 날 친구 따라 참석한 예배 시간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한 동네에서 어려서부터 늘 보아오

던 친구 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여인으로 다가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에는 아무 감정도 없이 “○○야!” 부르며 장난치던 소녀가 평생을 함께 걸어갈 반려자로 여겨지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묻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십자가가 인생의 보배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까? 언제부터 십자가 때문에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각자의 대답이 있을 것입니다. 혹 아직 이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언젠가 이 질문에 대답할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성도에게 십자가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151장을 부르던 날 후렴 가사를 보면서 들었던 또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처음 보던 날, 그 은혜의 의미를 처음 깨달았던 날의 감격이 지금도 퇴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지입니다. 처음에는 신선하고 가슴 떨리던 것들이 나중에는 텅텅해지고, 당시의 감격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는 어떻게요? 십자가에 대한 감동이 무디어진 나머지,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151장 후렴은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언제 처음 봤는지 기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처음 봤을 때의 감격, 즉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신앙의 기본입니다. 니콜라스 루트비히 폰 진젠돌프(1700~1760) 백작은 오스트리아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

서부터 경건한 부모에게서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나에게는 한 가지 열망뿐이다. 그것은 예수님, 그분입니다” 할 정도로 신앙 열정이 있었습니다. 학생 시절부터 선교 훈련을 받았고, 친구들과 기도 모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체험적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은 십자가 그림 아래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미술품을 관람하던 그는 스타인벡이 그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나는 너를 위해 몸 버려 피 흘려주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림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렸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 후 십자가는 평생 그의 신앙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는 모라비안의 지도자로서 헤른훗 공동체를 지도했고, 경건주의와 감리교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찬송가 151장을 부르면서 새삼스럽게 첫사랑, 첫 믿음, 첫 기쁨, 첫 감동이라는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영원히 구원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모든 원망과 불평은 사라질 것입니다.

올해도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마음에 모시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본 십자가, 처음 깨달은 십자가, 그 은혜가 지금도, 생애 마지막에도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만남**



사순절(四旬節)의 참된 의미

부활절 준비 기간

초기 교회 때부터 주후 4세기까지의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 사역, 수난, 죽음, 부활, 재림 등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하고 있는데 그중 주님의 부활과 관련된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초기 교회의 가장 오래된 절기인 부활절기 즉 기쁨의 50일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으로 시작되었고, 부활절 전 일곱 번째 주간의 참회의 수요일(혹은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에 시작하여 40일간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초기 교회는 매 주일을 부활을 위한 축제의 날로 삼아 예배드렸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완전한 교회력은 없었으나 주님의 부활에 초점을 맞춘 “작은 부활절(little Easter)”로 예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히 주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주(Big Easter)”에 연례 부활절로 지켰으며, 이 연례 부활절을 교회력의 중심으로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례 준비 기간

초기 교회 성도들은 세례와 깊은 관계가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기 전에 십자가의 수난을 명상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면서 세례를 준비하였고, 새롭게 세례 받는 교인들과 감격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다. 특히 초기 교회는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리고 감사하면서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이는 세례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나 참 자유를 얻는 시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3세기에 활동한 초대 교부 히폴리투스는 세례 지원자들로 하여금 성 주간 금요일과 토요일은 금식하고, 토요일 저녁은 철야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실천하기 어려운 세례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부활주일 전날 밤이나 새벽, 혹은 부활주일 아침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철저한 개인 회개 기간

어거스틴 때에 이르러 사순절은 세례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수난에 참여하는 기간으로 발전되었습니다. 본래의 의미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 및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서 보이는 자기희생적 사랑을 기억하는 절기로 발전되었고, 시간이 흐를수록 엄숙한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생활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부정하고 참회하는 기간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특히 ‘참회자

‘사순절(四旬節)’은 부활주일 전날부터 소급하여 40일간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속죄일로 명명된 재(灰)의 수요일(Ash Wednesday)을 첫째 날로 시작된다. 올해는 부활주일이 4월 4일(주일)이므로 소급 40일은 2월 17일(수요일)부터 4월 3일(토요일)까지인데 여기에 주일 6일을 제외한 40일이 절기의 기간이다.

의 화해(Reconciliation of Penitents)’라는 말은 고난주간 중인 성목요일과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이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찬식과 세족식을 베푸시면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이날을 화해와 용서의 날로 정하여 지키게 되었는데, 특별히 출교당한 사람이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회중들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날로서의 화해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처럼 세례의 본래 의미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희미해져가는 반면에 이 ‘참회자의 화해’는 더욱 그 의미가 강화되어, 사순절은 회개와 참회의 의미가 더 강한 절기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간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함께 기념하고 감사하는 통합적인 축제로 부활 절기를 지키던 초대교회는 4세기에 이르러 예루살렘의 주교였던 시릴(Cyril)의 주도하에 수난주간과 부활절을 분리하여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요 사역지인 예루살렘은 전 세계로부터 모여드는 순례자들을 위해 마지막 주간 즉, 유월절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또 시간과 장소를 따라 그리스도의 수난과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배와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사순절의 절정이 되는 수난주간(고난주간)입니다. 특히 부활절 직전의 성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집중적으로 추모하는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며

은총의 교회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시작된 사순절은 교회공동체가 십자가의 길을 지나 부활을 향

한 길을 걷는 기간입니다. 또 십자가의 수난을 명상하고 회개하며 세례를 준비하여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는 기간이고, 교회가 성례전적 삶 속에서 교회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새로운 시작의 기간이며, 우리의 모든 실패를 뒤로하고 주께로 돌아가 그분의 은혜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간입니다. 영락의 모든 성도가 이러한 사순절의 의미들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영락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개인의 경건 생활에 집중하여 신앙이 성숙하는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남**

† 사순절 기도

내 생명의 구주이신 하나님,
나를 헛된 말과 권력의 욕망과 실망,
그리고 나태한 마음에서 멀리해 주소서.
그리고 주의 종에게 사랑과 인내와 겸손과 정결의 마음을 주소서.
구주시며 임금이시여,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의 허물을 알게 하시고, 내 형제들을 판단치 않게 하소서.
주는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아멘.

4세기 시리아의 성 에프렘(St. Ephrem)의 기도로 지금도 사순절 기도의 모범으로 전해내려 오고 있다.



김정희 목사
성남·분당교구
예배부, 음악부

부활, 수난의 시간을 묵상하며

올해 부활절은 4월 4일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여섯 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앞두고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2월 17일입니다.

성경에서 40일은 고난과 시련, 인내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십자가와 수난을 생각하며 말씀 묵상, 절제, 회개와 기도로 경건을 실천합니다. 미디어가 우리 일상에 속속 들어와 있는 요즘, 사순절 기간에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로 구원을 증거하신 주님을 만나는 데 영화도 큰 몫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을 최소화하는 요즘 자녀와 함께 혹은 조용히 혼자 주님의 수난을 묵상할 수 있는 영화를 소개합니다. 이 영화들은 포털사이트에서 VOD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글 박선이 선임편집위원



부활 Risen(2016) 극영화

상영시간: 107분(12세 관람가) 감독: 케빈 레이놀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은 유대 땅을 담당했던 로마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는 예수에 대한 십자가 처형을 결정하고 손을 씻습니다. 책임을 피하는 행동의 상징이 되었죠. 그러한 빌라도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되지만, 성경에 이름이 남지 않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서 내리고, 돌무덤에 안치한 로마 군인들은 누구였을까요.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은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이 영화는 예수의 처형을 책임진 로마군 수장 클라비우스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클라비우스는

전쟁의 신 마르스를 숭배하는 군인입니다. '유대의 왕'이라 칭해지는 예수의 처형은 식민지 유대의 정치 지형과 관련해 폭동을 불러오거나 추종 세력의 시신 탈취가 염려되는 골치 아픈 사안입니다. 그래서 클라비우스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물론, 돌무덤에 시신을 안치하고 봉인하는 전 과정을 엄중하게 관리합니다.

돌무덤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도록 밤새워 지켰건만, 드디어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의 시신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예수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메시아로 부활했다는 소문이 점차 거세집니다. 로마제국의 엘리트 군인 클라비우스는 철저한 현세주의자입니다. 예수의 시신을 찾아야만 이 말도 안 되는 '혹세무민' 소동을 바로잡



을 수 있습니다. 클라비우스는 보좌관 루시우스와 함께 예수의 행적을 뒤쫓기 시작합니다.

클라비우스 역을 맡은 조셉 파인즈는 ‘셰익스피어 인 러브’ 같은 영화를 통해 잘 알려진 할리우드 배우입니다. 보좌관 루시우스 역할을 맡은 배우는 영화 ‘해리 포터’ 시리즈에서 알미온 드라코 말포이 역할을 맡았던 톰 펠튼입니다. 영화에 잠깐 등장하는 성경 속 인물의 성격과 대사를 발견하는 재미도 큼니다. 진지하면서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니고데모, 즉흥적으로 반응하는 열정의 소유자 베드로의 대사는 성경 속 인물 그대로입니다.

클라비우스가 예수의 행적을 따라가는 이유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고 돌무덤에 안치했는데, 다시 살아났다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거짓을 밝히고 현세의 진실을 확정하기 위해 클라비우스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그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합니다.



부활: 그 증거 (2020) 다큐멘터리

상영시간: 99분(전체관람가) 감독: 김상철

〈나의 선택 - 잊혀진 가방 그 못 다한 이야기〉(2010)
〈광인 옥한흠〉

(2017) 등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를 여러 편 만든 김상철 감독의 신작입니다. 베스트셀러 ‘내려놓음’의 작가 이용규 선교사와 배우 권오중, 2011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 배우 이성혜가 인도, 이탈리아,

리아, 한국을 넘나드는 긴 여정을 함께 하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을 증언합니다.

영화는 4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됩니다. 제1장 ‘삶과 죽음’에서 이용규 선교사와 이성혜 배우는 인도 바라나시를 찾아갑니다. 텔리에서 기차로 12시간을 달려 도착한 바라나시는 인도인들의 생사관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입니다. 더 이상 무엇으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도록, 완전한 죽음, 완

전히 끝인 죽음을 추구하는 이곳에서 ‘죽음이 끝’인 삶을 다시 생각합니다.

제2장 ‘어둠과 빛’의 이들은 이탈리아 로마로 날아갑니다. 천국계단교회와 세 분수교회(Three foundation), 퀴바디스도미네(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교회와 산 칼리스토 카타콤을 찾아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로마제국의 박해 아래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천국계단교회는 사도 바울이 수감되었던 곳에 세운 교회이며 세 분수 수도원은 순교지에 세운 기념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시민으로 화려한 빛의 세계에서 살다가 예수를 만난 후 고난과 어둠의 세계로 기쁘게 들어갔습니다. 초기 교인들은 로마 정부의 박해를 피해 완전한 어둠(지하 무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의 흔적을 만납니다. 부활 소망이 이들을 어둠 속에서도 빛을 향해 살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제3장 ‘상처와 상흔’에서 영화는 다시 인도로 돌아옵니다. 인도 첸나이에는 도마무덤교회가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에 찔린 상처를 만져본 제자이지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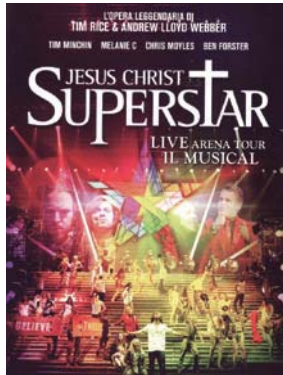


던 그가 제자들 중 가장 멀리, 인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도마의 발자취를 통해 이용규 선교사와 권오중, 이성혜는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 상흔을 통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기나긴 여정은 이 땅에서 마무리됩니다. 제4장 ‘부활의 증인’에서 세 사람은 암 투병 중인 젊은 여성 천정은을 만납니다. 말기 암 판정을 받은 후 80차 항암치료를 받은 그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다”라며 기뻐합니다.

김 감독은 제작 노트에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삶과 죽음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하는 사람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다음의 삶을 늘 생각하고 현재의 삶에 충실하며, 세상에서 말하는 고통과 죽음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고 말한다. 그것은 곧 ‘부활’이다”라고 말합니다. 영화는 드라마틱한 재미를 주는 대신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둠을, 상처를, 고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나는 부활 신앙을 지니고 있는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Jesus Christ Superstar(2012) 뮤지컬

상영시간: 104분(12세이상 관람가) 감독: 로렌스 코너

1971년 초연 후 현대의 고전으로 남은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새롭게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이 뮤지컬은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았지요.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은 가수 윤복희의 ‘아이 돈 노 하우투 러브 힘(I don’t know how to love HIM)’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예수가 ‘최후의 만찬’ 이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7일간을 담고 있습니다. 1971년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대본작가 팀 라이스(Tim Rice)가 함께 만든 록 뮤지컬로, 초연 당시 저항과 반항의 상징인 록 음악을 사용한 파격과 인간적인 청년 예수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른 배신자이지만 매력적인 유다를 대비시킨 연출로 주목받았습니다. 드라마는 유다의 시선으로 전개됩니다. 성서 속 인물들을 인간적인 모습으로 재해석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지요. 자신의 운명 앞에서 고뇌하는 예수의 모습과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는 유대 민족을 걱정하는 유다의 모습,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모두 현실에서 존재하는 인간의 모습이지요.

이 작품은 1973년에도 노먼 주이슨 감독 연출로 영화화되었습니다. 이번 영화는 주이슨의 영화에 비해 현대적 해석이 특색입니다. 테러와 폭력 시위, 경찰 진압과 이를 보도하는 TV 뉴스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이 아니라 지금, 이곳입니다. 시위대가 가득한 계단 위에 가롯 유다가 나타나 변화



를 갈망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예수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은근한 원망을 표현하지요. 출연자들은 평상복을 입고 록 콘서트 같은 무대에서 노래합니다. 배우들의 가창력이 대단합니다. 기존 무대의 뮤지컬 주요곡들을 더욱 폭발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역을 맡은 멜라니 C는 왕년의 걸그룹 스파이스걸즈 출신입니다. 유다 역의 팀 민친, 예수 역의 벤 포스터의 노래도 뛰어납니다. 겹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의 노래 ‘겹세마네’와 가롯 유다가 부르는 ‘그들의 천국(Heaven on their minds)’은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싶은 절창입니다.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가롯 유다는 스승이 생각하는 ‘새로운 나라’가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절규합니다.

경건하고 엄숙한 ‘사극(史劇)’ 스타일의 기독교 영화가 너무 관습적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는 꼭 추천하고 싶은 뮤지컬 영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입니다. **만남**

성경 말씀 소리내 읽고 암송·묵상

- 사순절의 영적 독서

사순절(四旬節)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십일을 일컫는 말이다. 왜 사십일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준비하신 날수가 사십일인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며 기념하기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 온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이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십일이고 사순절은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십일이다. 사십일 동안 그리스도인은 다양한 영성훈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준비하며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할 날을 기다린다.

사순절은 사십일 동안 영성훈련에 집중하는 기간이다. 여기에서 영성훈련이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을 잘 알아차리고 순종하기 위해 집중하는 모든 내적, 외적인

방법들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방법이라는 뜻에서 은혜의 수단(means of grace)이라고도 한다. 영성훈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묵상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맞볼 수 있는 첫 번째 수단이다.

성경 묵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성경 묵상 방법 중 교회사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이 영적 독서 또는 거룩한 독서이다. 라틴어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를 번역한 것이다. 귀고 2세는 『수도승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렉시오 디비나를 네 가지 단계 또는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그 네 가지 단계는 읽기, 묵상, 기도, 그리고 바라보기이다.



첫 번째 단계, 정해진 성경 본문을 반복해서 소리 내어 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읽는다.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선택한다.

두 번째 단계, 선택한 구절을 암송하면서 묵상을 시작한다. 묵상은 능동적으로 정신, 마음, 그리고 의지를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마주하고 반응하는 행위이다. 지성을 동원해서 말씀을 이해하고, 감정을 동원해서 말씀을 느끼며,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세 번째 단계, 묵상하면서 올라온 마음들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기도한다. 죄를 깨닫고 탄식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은혜를 깨닫고 느끼면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면 결단의 기도를 드리고, 또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청원의 기도를 드린다.

마지막 단계,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사랑의 임재 안에 고요히 머문다. 렉시오 디비나를 소개하는 영성 고전 『수도승의 사다리』를 쓴 귀고 2세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성경 묵상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묵상 없는 독서는 메마르며, 독서 없는 묵상은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묵상 없는 기도는 냉담하고, 기도 없는 묵상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가 열정적일 때 [바라봄]에 이르는 것이지, 기도 없이 [바라봄]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그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골고루 경험되지 않으면 마음은 어느새 메마르거나, 오류에 빠지거나, 냉담한 상태에 빠지고, 열매 맺지 못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순절 기간 날마다 최소한 30분씩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성경 묵상은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데 성경 묵상은 아침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침 묵상은 사실 묵상의 시작일 뿐이다. 아침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겨지는 성경 구절을 마음에 담아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수시로 되새기는 것이 진정한 묵상이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구체적인 순간에 적용되고 나를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기에 이른다. 이러한 성경 묵상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바로 시편 119편 103절인 것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깨닫고 느낀 것을 영성 일기장에 기록해놓으면 나중에 영적으로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된다.

사순절 묵상의 주요 주제:

죄, 죽음, 예수의 고난, 코로나

성경을 묵상할 때 어떤 주제에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 사순절 시기에 하는 묵상의 주요 주제는 죄,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첫째, 사순절은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는 죄악된 습관을 고치기에 좋은 시기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다. 아울러 더는 죄의 종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다. 죄악된 습관을 벗어나려면 죄에 대한 인식과 함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해 애통한 마음이 들어야 한다. 죄 묵상에 도움이 되는 성경 본문들은 다음과 같다: 십계명(출애굽기 20:1~17), 사도 바울의 악덕 목록(갈라디아서 5:19~21, 디모데후서 3:1~5).

둘째, 사순절은 죽음을 기억함으로써 겸손해지게 좋은 시기이다.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시작

되는 날을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했다.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재를 머리에 발라주면서 창세기 3장 19절을 읽어 주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수도원 영성의 위대한 스승인 요한 클리마쿠스는 『천국의 사다리』라는 책에서 자주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영성훈련이라고 강조했다: “부단히 노력하더라도 주님께 진 빛을 갇기에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을 자기 생애의 마지막 날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경건하게 살기란 불가능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면 가장 큰 죄 ‘교만’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아울러 우리가 얼마나 죽음의 권세에 짓눌려 사는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부활의 감격을 크게 맞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인내와 희생의 삶을 결심하기에 좋은 시기이다. 제자도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는 일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과 연합은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수님의 고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려는 마음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때 올라온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는 시기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넘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 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이 새롭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기에 적합한 시기이다.

이를 위해 도움이 되는 성경 본문은 당연히 복음서이다. 복음서를 한 권 정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읽고 묵상해보라. 우선 예수님을 더 잘 아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며 묵상한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축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인격적으로 사귀어 안다는 의미이

다. 복음서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 보고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를 향한 것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온다.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더 가까이 따르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2021년 사순절에 특별히 성경 묵상의 주제로 삼아야 할 것은 코로나 재앙이다. 우리는 현재 인류의 역사에 남을 감염병 재앙의 한 가운데에 있다. 성장의 가도를 질주하던 인류 문명이 강제로 멈춤을 당했다. 이 재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음에 대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반드시 묵상해야 한다. 성경에 나오는 재앙 및 탄식과 관련된 본문들을 읽고 묵상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본문은 다음과 같다: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백성이 경험한 열 가지 재앙(출애굽기 7~12장), 피조물의 탄식(로마서 8:1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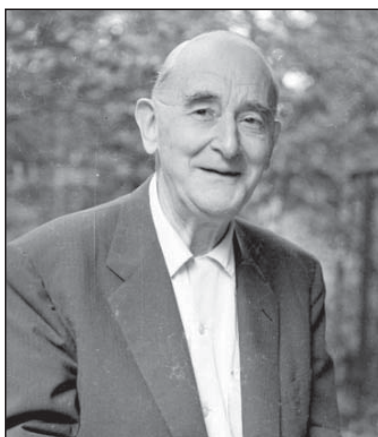
이번 사순절 성경 묵상을 통해 죄악 된 습관을 한 가지 극복하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용솟음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만남**



이강학 교수
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영성학

3·1운동을 세계에 알린 34번째 민족대표 스코필드 박사

3·1운동 100주년을 지나며 우리는 다양한 독립 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다. 일제의 탄압 속에 전국적으로 일어난 만세운동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세상에 알리고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기억하고 기록한 누군가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102년



전 3·1운동 당시 불편한 몸과 위험한 상황에서도 만세운동을 비롯하여 일제의 만행을 세계에 알린 이방인 독립운동가가 있었다. 국립서울현충원에 잠든 유일한 이방인 독립운동가 프랭크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 1889~1970) 박사다.

애비슨의 추천, 한국 땅을 밟다

1889년 영국에서 태어난 스코필드 박사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19세 나이에 홀로 캐나다 이민을 떠난다. 캐나다에 도착해 학비를 벌어가며 공부했고 원하던 토론토대학 수의과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무리한 탓일까? 21세에 소아마비를 얻어 불편한 몸이 되었다. 하지만 소아마비도 그의 강인한 의지와 삶을 멈추

게 할 수 없었다. 학업을 마치고 토론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 모교에서 세균학을 강의하던 중 존경하던 올리버 애비슨(Oliver R. Avison) 박사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는다. 애비슨 박사는 한국 선교사로 먼저 방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의사로 활동하던 중 스코필드 박사를 한국으로 초빙한 것이다.

갑신정변 이후 설립된 광혜원(제중원)을 세브란스병원으로 발전시킨 애비슨 박사를 평소에 존경하던 스코필드 박사는 1916년 한국행을 결심했고, 세브란스에서 세균학을 강의하며 한국인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목원홍 선생에게서 한국어를 열심히 배워 1년 만에 '선교사 자격 획득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그는 한국어로 강의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다.

한국 사람들에게 친근하도록 석호필(石虎弼)이라는 한국식 이름도 지었다. 석은 돌처럼 굳은 자신의 의지를, 호는 호랑이처럼 강인함을, 필은 돕는다는 뜻으로 식민지 조선인을 돕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한국 학생들에게 국제 정세를 알려주고 젊은이들이 무엇을 하며 미래를 꿈꿔 나갈지 가르치기도 했다. 민족을 깨우는 스승 역할까지 한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제암리 3·1운동순국기념관. 기념관 내에는 스코필드 박사의 동상이 있다

것이다. 그는 영국에서 힘겹게 노동에 시달리던 사람들을 많이 봐왔으며, 캐나다로 이주해서도 어렵게 학업을 마친 경험이 있었기에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회활동에 관심을 보였다. 특별히 국내에서 청년운동, 사회운동을 주도한 월남 이상재 선생을 존경했다.

3·1운동 기록한 34번째 민족대표

학생들을 가르치던 교수로서 또 다양한 사회운동에 관심이 많던 그에게 이갑성이 찾아왔다.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일하던 이갑성은 당시 서울 세브란스병원 약제실에 근무하고 있었다. 민족대표 33인 중 영남지방 대표이기도 했던 이갑성은 스코필드에게 서양의 여러 기사와 글들을 번역해서 알려 달라는 부탁을 했다. 조선의 상황과 외신과 국제사회에 알려주길 요청하고 독립선언서 사본을 미국 백악관에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3월 1일 아침 이갑성은 다시 스코필드를 찾아 탑골공원에서 진행될 예정인 만세운동의 장면을 사진으로

담아주길 요청했다.

스코필드 박사는 한쪽 팔과 다리가 불편했지만, 흔쾌히 승낙하고 당일 오후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찾았다. 탑골공원 만세운동 장면을 찍으러 일 본인 상점 2층에 올라 사진을 찍다 낯선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했고 불편한 몸으로 사진을 잘 담기 위해 일본의 눈을 피해 여기저기 높은 곳에 올라가 만세운동 현장을 담으려고 애쓰기도 했다. 당시 한국을 찾은 선교사들은 대부분 정교분리(政敎分離) 원칙을 내세워 독립운동을 직접적으로 돕지 않았으나 스코필드 박사는 불편한 몸에도 조선인들의 만세운동 현장을 카메라에 담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었다.

3·1만세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각 도시의 지도자 및 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주축이 되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만세운동을 펼치자 전국 각지로 만세운동이 불꽃처럼 번져나갔다. 비폭력으로 시작한 만세운동이었지만 일부 지역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일본도 인명 피해

를 보자 우리의 저항을 철저히 응징하고 보복하기 위해 집단 학살을 계획한다. 그렇게 슬픈 4월의 봄이 시작되었다.

화성 제암리, 학살의 현장을 세계에 알리다

1919년 4월 5일 새벽, 일본은 경기도 화성군 수춘리를 급습해 마을과 교회에 불을 질렀다. 수춘리 마을의 42호 가옥 중 38호가 불탔다. 4월 13일 아리타 도시오(有田俊夫)는 일본 육군 보병 79연대 소속 중위로 부임해왔다. 토벌보다 치안유지가 목적이었으나, 발안 장터 만세운동의 주도자 중 제암리 사람들이 체포되지 않은 것에 불안해하며 토벌 계획을 세운다. 제암리는 천도교와 기독교의 교세가 강해 민족정신과 더불어 신문화에 대한 수용이 활발히 일어나 의식 수준이 높은 마을이었다. 스코필드 박사는 제암리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 소식을 듣고 4월 18일 자전거를 기차에 싣고 수원역으로 향했다. 역에서 내린 후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먼 길을 돌아 제암리를 찾았다. 그는 제암리에 막 들어섰을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919년 제암리 학살 당시의 참혹한 모습. 스코필드 박사는 「제암리 학살 보고서」를 통해 일제의 잔인함을 세계에 알렸다

논을 따라가다가 모서리를 돌아 잊을 수 없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마을은 불타 있었고 몇 군데에서는 아직도 연기가 나고 있었다.

일본군들이 제암리에 들어와 주민들을 학살한 이야기는 스코필드 박사의 보고서 「제암리 대학살」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4월 15일 화요일 이른 오후, 일본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와 성인 남성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에게 전달할 말이 있으니 모두 교회에 모이라고 명령했다. 교회에 모인 23명가량의 남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걱정하면서 명령에 따라 바닥에 앉았다. 잠시 후 군인들이 교회를 둘러싸고 종이 창문 너머로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그때서야 청년들은 명령의 진의를 알게 되었다. 그들 대부분이 죽거나 다쳤는데도 악마 같은 군인들은 불에 잘 타는 초가지붕과 목조 건물에 불을 질렀다. 몇 사람이 뛰쳐나와 도망쳤지만, 그들은 곧바로 총검에 찔리거나 총에 맞았다. 탈출 시도에 실패한 6명의 사체가 교회 밖에서 발견되었다. 교회에 불려간 남편을 찾아 군인들의 포위를 뚫고 교회에 가려 했던 두 명의 부인도 모두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19세의 젊은 부인은 총검에 찔려 죽었고 40대의 여성은 총에 맞았다. 두 사람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그 후 군인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떠났다. 이것이 제암리에서 벌어진 피의 대학살 사건의 간략한 기록이다.

스코필드 박사는 제암리와 인근 수춘리, 고주리까지 찾아가 일제의 잔혹한 학살 현장을 사진에 담고 시신을 수습해 주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제암리 학살보고서」와 「수춘 만행보고서」 등을

작성해 세계에 일제의 잔인함을 알렸다.

제암리를 다녀오던 기차 안에서 그는 우연히 이완용을 만났다고 한다. 이완용은 의사이면서 기독교인이었던 스코필드 박사에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소?”라고 물었는데 스코필드 박사는 “당신은 먼저 이천만 동포 앞에서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라며 호랑이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다고 한다.

조선 독립을 호소하다 추방되다

스코필드 박사는 3·1운동으로 감옥에 잡혀 들이간 독립운동을 돕는 일에도 앞장섰다. 1919년 당시 전국적으로 거사됐던 3·1운동의 기세가 아직 식지 않았기에 서대문형무소 면회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스코필드 박사는 외국인 선교사이자 의사인 점을 활용해 서대문형무소 출입을 허락받았다. 일본이 교도소에서의 악행을 감추고 ‘서대문직업학교’ 등의 이름으로 형무소를 포장하고 좋은 시설인 것처럼 기사 낸 것에 분노하며 신문에 서대문형무소의 실상을 공개했다. 1919년 5월 서대문형무소 ‘여옥사 8호실’을 찾아 세브란스 간호사인 노순경을 만나고 이화학당 학생인

유관순, 어윤희 등도 만났다. 그리고 직접 총독과 경무국장을 찾아 항의하며 당장 비인간적인 고문을 멈출 것을 요구했다.

9월에는 동경에서 열린 극동지역 선교사대회에 나가 3·1운동의 무자비한 진압, 악행 등을 폭로하고 비난하며 일본 수상과 관리들 앞에서도 조선의 자치와 독립을 호소했다. 12월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사건으로 김마리아를 비롯한 간부 80여명이 체포되는 일이 일어났다. 스코필드 박사는 직접 대구경찰서를 찾아 고문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수감자들에게 몰래 고약을 넣어주기도 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일본에 눈의 가시가 아닐 수 없었다. 독립운동을 돕는 그의 행동으로 일본은 감시원을 붙였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에 압력을 넣어 그와 학교가 맺은 계약을 종결하고 한국을 떠나도록 압박했다. 결국 그는 살해의 위협을 겪으며 1920년 4월 재계약이 안 되었다는 통보와 함께 한국을 떠나게 되었다. 일본이 그를 얼마나 미워하고 불편해했는지 짐작할 만하다. 캐나다로 돌아온 그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조선에 대한 염려와 격려를 잊지 않았고 한국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언젠가 조선 동포들을 만나기 위해 수입의 절반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독립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 나는 ‘캐나다인’이라기보다 ‘조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국을 찾아, 국립현충원에 잠들다

1958년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수립 10주년’에 맞추어 스코필드 박사를 국민으로 초청했다. 3·1운동의 공로자인 스코필드 박사 환영식이 이화여



3·1운동 직후 유관순 열사가 투옥되어 숨을 거둔 서대문형무소 여옥사(女獄舍)



1958년 정부수립 10주년에 맞추어 국민으로 초청된 스코필드 박사

고 노천강당에서 진행되었다. 3·1운동 당시 도움을 요청했던 이갑성 선생의 개회사에 이은 많은 이들의 환영과 선물에 그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라는 유창한 한국말로 기쁘게 화답했다. 그리고 남은 생을 한국에서 보내기로 한다.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로 활동하며 후학을 양성하고 보육 사업에도 힘썼다. 해마다 3·1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당시를 회고하며 한국이 독립을 기반으로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하길 희망했다. 당시 정부의 독재와 부패한 정치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한국에 돌아와 제암리를 다시 찾은 그는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선물을 나눠주며 그들을 격려했다. 유족의 슬픔만큼은 아니더라도

스코필드의 사랑의 크기는 컸다. 아물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따뜻한 사랑으로 풀어준 것이다.

1970년 4월 12일 스코필드 박사는 그토록 사랑했던 대한민국 땅에서 눈을 감았다. 죽음을 앞둔 그가 남긴 유서에는 자신이 돌보던 아이들을 계속 보살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제2의 조국 한국에 묻히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1960년 대한민국 문화훈장과 1968년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을 받아 서울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되었다. 이는 외국인으로는 최초의 사례였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도 스코필드 박사는 한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약자들에게는 비둘기처럼, 강자들에게는 호랑이처럼’ 말이다. 3·1절을 맞아 따뜻한 봄날, 서울 돈의문 박물관 마을 스코필드기념관이 나 화성 제암리 순국기념관을 찾아 스코필드 박사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만남**



스코필드 박사는 1970년 4월 외국인으로는 최초로 동작동 국립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김학천 대표
조선선교연구회
부산 총렬중 역사교사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을 보는 그리스도인의 시각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세계적으로 이미 1억1,000만 명 넘게 확진되었으며 240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제 막 몇몇 나라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으나 전 세계의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백신 공급이 늦어지는 후진국의 방역 및 진단체제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팬데믹은 지속되어 왔다. 14세기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몰고 간 흑사병이 있고, 가깝게는 1918년에 시작된 스페인독감이 최대 5,00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지금의 코로나19 감염병은 이 흑사병이나 스페인독감보다 치명률은 낮으나 그 심각성은 결코 가볍지 않다. 오늘날은 과거보다 지구가 크게 세계화되어 전염 속도가 훨씬 빠르며 아울러 세계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몹시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정부와 각국의 정부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강한 방역 정책을 추진해 왔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취할 강력한 전염방지책은 사람들

의 대면 차단, 즉 봉쇄정책이다. 그런데 이 봉쇄는 경제의 침체를 초래한다. 방역을 강화하면 경제가 나빠질 것이고, 경제를 살리자니 방역을 완해야 하는 딜레마라 하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방역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결국 경제도 회복되지 못한다. 따라서 단기적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봉쇄정책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생계유지도 생명을 보존한 후에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팬데믹과 이에 따른 봉쇄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특히 저소득층이 더 많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향이 있다. 그뿐 아니라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한다. 결국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다.

팬데믹은 또 각국 정부의 활동 영역을 확대했다. 방역을 위한 개인 활동 제약, 확진자 치료를 위한 공적의료행위 확대, 그리고 경제적 침체와 불평등 개선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요청되기 때문

이다. 물론 국민의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집권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전체주의적 행태를 보인다면 이는 마땅히 견제되어야 한다. 정부가 진정한 방역과 피해자 보호, 그리고 불평등 완화에 충실하게끔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요청된다.

여기서 교회가 취할 입장도 분명해진다. 교회는 방역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예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염되어 이웃을 어렵게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닐 뿐더러 선교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중단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오늘의 정보통신기술은 불완전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가능케 한다. 그렇다 해도 충분히 방역해서라도 대면 예배는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온 교회가 방역에 힘쓰는 동시에 국가적 위기 타개에 협조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해서 사회적 관계 개선과 동시에 정부의 전체주의적 행태를 견제해야 할 것이다.

사실 영락교회와 같은 대형교회들은 온라인 예배를 무난히 진행하고 있지만, 자립하지 못한 작은 교회들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준비도 미흡하며 성도들이 모이지 않을 경우, 교회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비교적 어려움이 덜한 교회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교회들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물의를 빚는 교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희생적으로 팬데믹과 싸워온 의료진 지원 및 어려움에 직면한 교인들과 학교에 가지 못하고 교회에 올 수 없어 교육적으로 피해를 본 아동들을 돕는 일도 필요할 것이다.

백신접종이 순조로우면 내년에는 일상생활이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 변이와 백신 효력 여부에 따라 우리 생활이 다시 크게 영향받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생태계 파괴가 확대되고 기후변화가 심화함에 따라 또 다른 팬데믹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협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교회는 공동체가 지닌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의 환경과 생활에 대한 의식을 전환하는 작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발생되었는가? 바로 과도한 인간의 욕심이 자연생태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시작된 것이 아닌가? 성서는 자연을 조화롭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자연을 잘 관리하라 명령하셨음을 가르친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 생태계는 크게 오염되고 있으며 인간의 욕심에 의한 탄소량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초래해 지구적 재앙이 예측된다. 어떤 학자들은 수만 년 동안 빙하 속에 갇혀있던 바이러스가 온난화로 인해 되살아나서 과거에 없던 질병이 퍼질 수 있다고 말한다.

물론 이 환경보존의 과제는 전 지구적 또는 국가적 과제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생활에서의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조화로운 자연관리와 환경보호를 온 사회에 선포하며 교인들이 환경보호를 실천하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욕심을 자제하고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등 소비생활에서의 의식 전환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만남**



이영선 원로장로
강남교구
前 한림대 총장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교회학교 교육 현장에 강력한 성령의 드라이브 필요”

교회학교는 교회 공동체의 미래다. 교회학교와 기독교 교육의 위기는 한국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교회학교 운영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했고, 이러한 변화는 교회학교 사역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신임 교육부장 정천우 장로와의 인터뷰를 통해 영락교회 교회학교의 현재를 진단하고 위드(with)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 사역의 방향성을 고민하고자 한다. 2016년부터 학교법인 보성학원(보성여자중고등학교)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 장로는 인터뷰를 통해 교회학교 사역뿐만 아니라 기독교 사학을 중심으로 기독교 교육 전반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정천우 교육부장과 인터뷰는 홍보출판부장 양지청 장로와의 대담과 서면 인터뷰를 병행해서 진행했다.

영락교회 교회학교의 ‘현재’와 교회학교 앞에 놓인 과제를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김운성 위임목사님께서 작년 말 당회원 장로님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약하자면 ‘교인들을 추스르고 돌보며, 숨어있는 응집력을 모으고, 다음세대 주제에 다가서고자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개인적으로 감격과 아픔이 동시에 지나갔습니다. ‘잊지 않으셨구나. 다음세대를... 그런데 그들은 다 어디에 있지?’라는 생각과 함께요.

다음세대, 곧 영락교회 교육현장에 강력한 성령의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그로 인한 매력이 교회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 매력은 말씀에서, 관계에서, 환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총체적 매력을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다음세대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 중 하나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

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이자 영락교회의 심각한 현안입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누수 없는 진급’, ‘교육부서 간 등반 연계’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전도’입니다. ‘좋은 교역자와 교사·리더가 말씀과 사랑과 관심으로 학생들을 돌보아 전원 상급 부서로 옮겨 정착토록 한다’는 대원칙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는 제거하거나 보완해야 합니다. 중·고등부와 대학·청년부에선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원의 이탈이 심해집니다. 말씀에 감동이 있고 교회 오는 것이 재밌고 즐거우면 아이들과 청년들이 열심히 교회에 나올 것이고, 친구나 동료를 데려오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영락교회가 좋아 전도하고픈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 구하고 개선하며 움직여야 다음 세대가 일어섭니다.



대담을 나누는 교육부장 정천우 장로(오른쪽)와 홍보출판부장 양지청 장로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교회학교 운영에도 급격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포스트(post) 코로나를 넘어 위드(with) 코로나 시대 교회학교에 요구되는 새로운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앞선 질문의 답변에서 ‘누수 없는 진급’이란 표현으로 ‘교육부서 간 등반 연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죠. 이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 이하 TF)팀 구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교회교육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교회교육원과도 논의 중입니다. TF팀의 우선 과제는 인원 누수를 최소화 하도록 안정적인 등반 연계 방안 모색인데 이 TF팀에 코로나 관련 임무도 함께 주어질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온라인 사 이버 공간은 교역자와 교사, 학생들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익숙한 무대가 되겠지요. 교역자와 교사 모두 어떤 형태든 비대면 온라인 방식

과 결합된 예배와 교육 활동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보완적으로 잘 활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포스트 코로나(post corona)라는 말이 적절한지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대면 활동에 익숙해진 어린이와 학생, 청년들이 코로나 상황 이전으로 완벽히 돌아갈 것으로 보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다 각도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를 둘러싼 기독교 교육 생태계의 변화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계시나요?

우리 사회의 교육환경은 멀티미디어 환경으로 변하고 있으며 각 학교마다 교수학습법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

“다음세대, 곧 영락교회 교육현장에 강력한 성령의 드라이브가 필요합니다.
그로 인한 매력이 교회에 넘쳐나야 합니다. 그 매력은 말씀에서, 관계에서,
환경에서 나와야 합니다. 총체적 매력을 넘치게 하는 것 그것이
다음세대 문제를 푸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다. 우리 교육부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사회의 변화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젊은 교사의 수가 부족하고 교사의 연령은 높아지면서 목회자 중심 사역 속에 교사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온라인 예배 중심의 코로나 시국에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교감 부족은 물론 교사의 역할이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의 구체적 해결을 위해 교육부는 단계별 접근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방안은 ‘교육부서 전담목회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영락교회 목회 비전 공유→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일정 연령 이상의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교회 내외 교회 교육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립된 의견을 포함시킨 부서별 교육 방법론과 교사의 역할을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도입’의 과정입니다. 또한 교사교육부를 통해 진행하는 ‘다음세대 기도회’를 통해 교사들이 다 함께 기도하며 영락교회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며 찾아보고자 합니다.

기독교 교육 전반에 대한 현안으로 화제를 돌려보죠. 기독교 사학이 위기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기도와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이 땅에 발을 디딘 후 선교사들은 교회와 학교 세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교회와 학교는 항일구국운동의 본산이 되고 근대교육의 통로가 되었지요. 사립학교 역할이 이렇게 중요했어요.

그런 사립학교가 1963년 사립학교법 제정 후 이뤄진 74번의 개정을 통해 점차 자율성에 제한을 받습니다. 기독교 사학 위기의 시작인 1974년 평준화 정책, 건학이념 구현에 어려움을 준 2005~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및 재개정, 예배와 종교 활동에 제약을 준 2012년 학생인권조례, 종교학 수업을 등장시킨 2014년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거치며 작년에는 ‘차별금지법’과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종립학교에서는 성(性)적 지향과 관련해 건학이념을 지킬 수 없고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 기독교사학의 학교장이나 교사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김운성 목사님이 위원장인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약칭 기정추)는 해당 사안의 위험성을 한국교회총연합회(이하 한교총)에 알렸고, 작년 가을 한교총은 사학법 관련 결의를 했습니다. 이후 기독교 사학들의 세미나와 이사장 간담회, 사학법 대응 전문위원 구성, 국회

의원 면담, 언론사 초청 한교총의 성명서 채택 및 발표 등의 순서를 밟으며 대응해 왔습니다. 곧 이어 기독교사학법인연합회가 출범 예정이 고요. 쟁점 법률안들이 아직 가결되지 않은 지금은 사립학교 정체성 수호에 대한 한국 교회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 교육이 겪는 어려움은 어디서 기인한 걸로 보시나요? 기독교 학교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오늘날 기독교 교육의 문제는 ‘기독교 교육의 비전과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했기에 생긴 것이라 생각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고나 행위의 체계가 필연적으로 변하게 되는데 기독교 교육이 이에 잘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지성적인 것이 오히려 적(敵)그리스도적일 수 있음을 알고 기독교 교육을 통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교육’의 부재 역시 명백합니다. 기독교 사학에 성경 교육은 있지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교과과목 연구나 교육은 없습니다. 모든 과목에 관련된 기독교적 윤리를 십대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사적 관점에서 기독교 학교의 태동 및 역할 이해를 위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목들의 ‘깊은 영성’ 또한 절대적으로 요구되고요. 더불어 교목실의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예배와 전도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비신자 학생들을 위해 예배 형식을 다양화 한

다거나 제자양육을 진행하여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와 선교를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학교 안에서 봉사와 섬김의 리더 훈련을 통한 신앙 훈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목의 동역자로서 교사의 역할 정립을 위해 ‘교사를 위한 신앙 강화 노력’이 절실합니다.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도 체벌보다는 교화, ‘학생 자치 규약’ 등이 적용되는 상호신뢰의 환경 조성.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는 봉사 활동, 부적응 학생을 위한 미용 혹은 바리스타 등의 대안교육, 사랑의 상담 콜센터 운영 등과 같은 여러 노력을 통해 학생 스스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어야 합니다.

교회학교를 위한 특별한 기도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주제는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교육부에 소속된 다음세대 자녀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영적 감동을 주시어 그 감동을 친구와 동료에게 전하는 은혜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영락교회가 매력 있는 공동체가 되고 기뻐하는 그들로 인해 다음세대가 부흥하게 되는 일을 보게 되길 진정 소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힘들지만 여전히 다음세대에 대한 꿈을 향해 교육부는 걸어갈 것입니다. **만남**

대학 신입생에게 간절한 소망을 먼저 찾으세요

대학 신입생에게 도움이 될 글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철학적인 주제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락교회에서 유아세례부터 받은 신앙의 선배로서, 우리 교회 후배들을 위해 제 경험을 통해 얻은 한 가지 조언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영학과 교수이다 보니, 제 글이 다소 전공자의 관점에서 쓰였다는 점과 대학 신입생만을 위한 글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에게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8년간 교수로 생활하는 동안 연간 200~3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강의하면서 많은 학생에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수업 내용이나 과제에 관한 질문 외에 학생들이 가장 빈번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주제는 졸업 후 진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수의 학생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고민이나 탐색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 친구들이 CPA(공인회계사) 자격증은 기본이라 하니까 그저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 부모님이 원하는 로스쿨에 진학해야 할지를 묻기도 합니다. 적성에 맞지는 않지만 금융업이 연봉이 높으니 좋지 않겠냐고도 하는데, 이처럼 자신의 진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부모님

의 뜻이거나 친구들이 하니까, 아니면 돈을 목표로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학생의 이야기를 경청한 후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그것이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하나요? 10년, 2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그 쪽으로 상상해 보면 엔돌핀이 솟아나고 가슴이 설레나요? 정말로 간절히 원해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학생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찾지 못한 채, 신입생에서 2학년으로 또 3학년으로 올라가고, 4학년 졸업반이 되어서는 여기저기 지원해 어느 직종이 연봉이 높은지 비교해보고 결정합니다.

최근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현재의 일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한 직장인은 10명 중 1명뿐이었고, 10명 중 6명은 현재 직업이 학창 시절의 장래 희망과 전혀 관련 없다고 답했습니다(벼룩시장 구인구직, 1,943명 대상, 2020년 8월 조사). 대다수 직장인이 본인의 직업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만족감을 못 느끼는데 왜 계속하냐고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꿈이고 뭐고 먹고 살기 어려워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고 대답합니다. 불행한 현실이지요.

저는 신입생들에게 대학 생활을 통해 본인이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꿈이 무엇인지 찾도록 노력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저학년부터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꿈을 찾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의 연구 결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달란트가 합치되는 곳을 발견하세요

하버드대학 경영대학원 교수였던 마크 알빈의 저술 『Making a Life』에 소개된 연구입니다. 미국에서 1960년에 경영대 졸업생 1,5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연구했습니다. 그룹1은 ‘졸업 후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선택하고, 일단 돈을 어느 정도 번 후 나중에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룹2는 ‘돈과는 상관이 별로 없더라도 정말 소망하던 일을 일단 시작하면, 경제적 부는 자연스럽게 따라 오지 않겠나’라고 했습니다. 이때, 대다수인 83%(1,245명)가 그룹1 직업을 결정했고, 그룹2 직업을 결정한 이는 단지 17%(255명)에 불과했습니다. 20년간 이들 1,500명을 추적조사해보니, 이들 중 1980년까지 백만장자가 된 사람이 총 101명이 나왔는데, 놀랍게도 그룹1에서는 단 한 명밖에 없었고, 그룹2에서 100명이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아닌 자신의 꿈을 좇아간 사람 중 약 40%가 경제적 성공도 거둘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지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

서 국민적 영웅이 된 김연아 선수가 2013년 포브스가 발표한 세계 여성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에서 연 150억 원으로 세계 6위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돈을 추구했다면, 당시 비인기 종목이었던 피겨스케이팅을 선택하지 않았겠지요. 피겨스케이팅에 대한 애정과 가슴 뜨거워지는 열정,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는 목표(꿈)를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로 부와 명예, 인기가 저절로 따라온 것 아닐까요?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을 가슴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캠퍼스에 있는 동안 꿈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파악하여 그 둘이 합치되는 곳에서 진로의 목표를 정하세요. 그렇게 시작하면, 여러분이 직장생활에 만족해하는 10%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여러분 개인의 부를 축적하기 위한 수단만이 아니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선순환할 수 있다면 만족도와 가치는 더 올라갈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꿈’을 찾으세요. **만남**



김성문 집사
서초교구
연세대 글로벌인재대학장

“세상을 보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라”

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심히 좋았더라(창세기 1:31)” 주제로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출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게을러지고 몸과 마음이 지쳐있었는데 온라인으로나마 수련회가 이루어진다니 걱정되면서도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는 설레야 할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코로나 때문에 어영부영 보냈습니다. 지난 일 년 모든 일과 상황을 보며 나의 힘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했기에 이번 수련회를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수련회는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1월 31일과 2월 7일 주일은 고등부 예배를 드렸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아침기도회(오전 7시), 저녁 창세기 성경통독(밤 10시 30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6일)에 진행된 방탈출 형식의 ‘이스케이퍼(ESCAPER)’는 흥미로웠습니다. 31일 닫는 예배에서 노대웅 목사님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제목으로 황금문(성전 미문) 앞에서 황금만을 구하는 자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아닌 황금만을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이미 황금문을 열어 놓으셨으나 탐욕에 눈먼 우리는 미처 주님의 문(회개와 자비의 문)을 보지 못한 것이니, 우리는 황금이 아닌 자비와 회개를 주목하여 주님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예배 후 <고등부, 무엇이든 물어 보살>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고등학생이 가지는 신앙적 고민과 삶의 고민을 즉석에서 나누면서 목사님, 전도사님과 고등부 친구들이 한층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방학 중이지만 아침기도회 덕분에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씀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완전하지 못하다. 그래서 주님의 택함과 은혜가 먼저이다. 노

아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키고 계시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라는 말씀도 크게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녁 성경통독 기도회는 목사님께서 5일동안 창세기 50장을 직접 읽으면서 구절에 담긴 뜻을 설명해주셨습니다. 창세기 통독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뒤덮으셨지만, 다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보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꼈습니다.

인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상급이신 것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주님이 계실 수 있다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무언가 충격적이면서도 주님이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더 자리 잡으신 시간

‘ESCAPER’ 활동은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재미있고 신기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힌트가 제시하는 암호를 풀면서 6개의 방을 탈출하는 것인데, 마지막 6번째 방까지 갔을 때는 문제를 다 풀었다는 쾌감과 성취감이 몰려오며 정말 뿌듯했습니다. 방이 6개인 것은 주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의미이며, 각 방의 암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꼼꼼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느라 애쓰신 전도사님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생회 언니, 오빠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문

제를 다 풀어서 3등이 되어 더 기뻐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 닫는 예배에서 목사님은 “여섯째 날이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세계는 이미 다 이루어졌으며 오늘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보지 말며 주님과 동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수련회에 열심히 참가한 친구들에게 ‘영락 하이 어워드(High Award)’를 수여했습니다. 저도 몇 개의 상을 받아서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제 마음에 더 자리 잡으신 것 같습니다. 제 모든 일과 상황을 주님께 고백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수련회 때 처음으로 무언가 뜨거운 마음을 느꼈던 저이기에 겨울수련회는 언제나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새 학년과 새 학기 시작 전에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겨울수련회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해서 너무 안타까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평소에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사소한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이 주님의 계획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겠다고 느낀 수련회입니다. **만남**



채나현
고등부 2학년

교실 수업 못해 본 20학번 1학년!

‘대학생 150명 중 103명(약 68%)은 하루 야외활동 시간이 1시간 미만.’ 지난 학기 <코로나19로 인한 심리변화> 설문 조사 결과 중 하나입니다. 학기 중 대학생이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1시간 미만이라니! 정말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힘든 재수 생활을 마치고 20학번으로 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던지요! 하루 야외활동 1시간미만 같은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활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해보고 싶어서 등록하자마자 기숙사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개강이 연기되면서 기숙사 입사일이 점점 늦춰지더니 결국 비대면 수업이 확정되면서 입사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입학식과 신입생 환영회, 오리엔테이션 등이 모두 취소된 채, 3월 16일부터 집에서 1학기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들으며 신입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한 번도 못 나가, 선배나 동기들도 못 만나고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아쉬웠지만, 조만간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대면수업을 할 거라는 희망을 품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결국 2학기가 끝날 때까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학교에 몇 번 갔었는데, 처음 학교에 간 것은 4월에 벚꽃 핀 캠퍼스를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간고사 또는 실험 수업 참여를 위해 1년 동안 학교에 간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온라인 수업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기 힘들다는 점입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교수님께 여쭙볼 방법은 메일을 보내는 건데, 매번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는 것도 불편했고, 답을 받는다고 해도 수업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한 학년을 마쳤고, 여전히 코로나19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2021년 1학기도 일단 온라인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21학번 후배들에게

먼저 “고생하셨습니다”라고 격려해주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년에 비해 혼란스러웠던 험난한 여정을 마치고 합격한 모든 분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전히 이번 학기도 비대면 수업이 예상되고, 언제쯤 학교에 갈 수 있을지 불확실하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노

력과, 그 노력 끝에 합격한 대학교에 대해 자부심을 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어 우리 모두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비대면 대학 생활을 먼저 겪은 선배로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1학년 동안 학교 온라인 수업 외에 다른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아르바이트나 취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진로탐색으로 시험이나 자격증 준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2학기에 기아 대책에서 운영하는 <한톨청소년봉사단>에 들어가 대학생 멘토로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교육봉사활동에 관심이 생겨서 지금은 탈북청소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은 '비대면' 신입생 1년이었지만 이런 의미있는 활동 덕분에 1학년을 후회 없이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에도 충실히 임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은 실행 방식에 따라 실시간 수업, 비실시간(녹화 동영상) 수업이 있습니다. 어떤 수업은 실시간, 비실시간 수업을 병행하기도 하고, 비실시간 수업의 경우는 출석인정이 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일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실시간, 비실시간 수업에 대한 일정계획을 잘 짜서 시간관리를 해야 합니다. 또, 모르는 것은 교수님께 적극적으로 물어보십시오. 이메일이 좋습니다. 어떤 교수님께 이메일로 질문했는데, 전화로 직접 친절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대학졸업 후 남는 것은 성적이므로 수업과 과제, 시험 모두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학생으로서의 기본 자세입니다.

친구를 사귀는 일도 열심을 내보세요. 비대면 상황이어도 학교 친구들을 사귄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팀 프로젝트도 하고, 동아리에 들어가 부원들과도 친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팀 프로젝트나 동아리 활동 역시 거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겠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 학교 친구들을 만들어나가면 좋겠습니다.

20학번의 2020년은 아쉬움 많은 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학업과 봉사활동, 베드로부 학생회 활동 등,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며 그 아쉬움을 달래보았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1학년에 대해 보상받을 방법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대학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 대학 생활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은 20학번, 21학번 모두에게 숙제인 듯합니다. 각자 겪고 있는 어려움은 다르겠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모두 힘차게 새 학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만남**



최연우 성도
베드로부 30기 학생회 회장
경희대 전자공학과 20학번

잠비아 영락크리스천스쿨 첫 졸업생 배출



김서영 선교사가 설립한 영락어린이교회의 아이들. 영락어린이교회는 잠비아 최초의 어린이교회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결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2~13)

2020년 12월 19일

잠비아 영락크리스천스쿨 7학년생 74명의 첫 졸업식이 있었다. 고아였기에 또 가난했기에 학교도 못 다니고 할 일도 없이 종일 길바닥을 놀이터 삼았던 아이들이 7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것이다.

잠비아에서의 9년은 우리 부부에게도 이 아이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다. 지난 2012년, 환갑을 녀 달 앞두고 만나게 된 선교지 잠비아!

잠비아는 아프리카 중남부 내륙에 위치한 나라다. 영락크리스천스쿨은 잠비아 제3의 도시인 은돌라 외곽, 우범지역으로 알려진 가난한 동네 치푸루쿠수에 있다. 콩고 국경에서 불과 15km 떨어져 있다. 하나님께서는 맨발의 아이들이 술 취한 사람들과 노는 모습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도시 빈민 사역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다. 사역 첫 해 12월 현지에 NGO를 설립했고, 보여주신 치푸루쿠수 마을 끝 학교 부지를 정부로부터 불하받아 구입했다.

2013년 학교 건축의 첫 삽을 뜨다

학교 건축에 앞서 먼저 전기를 끌어왔으며, 지하 80m를 파서 지하수 2개를 끌어내어 하나는 학교용, 다른 하나는 주민들의 식수용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학교 건축을 위해 기초를 파고 시멘트 벽돌을 직접 만들기로 했다. 과거에는 진흙으로 흙벽돌을 빚어 집을 지었으나 요즘은 이곳도 시멘트 벽돌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주말 사이에 애써 만든 5,000여 장의 벽돌이 없어졌다. 경비원의 연락을 받고 찾을 가망이 없는 벽돌을 찾아 벌판 끝까지 달려가도 보았다. 범죄자 소굴로 알려진 치푸루쿠스에서 첫 도난 사건이었지만, 다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해하며 1km나 되는 학교 담장을 먼저 쌓은 다음에 교실 8개와 행정동을 건축했다.

먹을 것도 일자리도 없는 마을 청장년들을 고용해 학교 건물을 지었다. 건축학교라도 된 듯 건축 기술을 가르쳐가며 지었다. 직선 개념조차 없었기에, 비뚤어지게 세운 벽을 부수고 다시 세우고 하는 순한 과정을 거치며 학교를 완성했다. 대구 영남대학교 이공대학으로 2명의 장학생을 처음으로 보냈다.

2014년 영락크리스천스쿨의 문을 열다

고아, 장애아, 극빈자 등을 선발해 무료 교육을 시작했다. 한국에서 ‘영락크리스천스쿨’ 글자를 인쇄해 제작한 학교 티셔츠를 공수해오고 교복 천을 사서 교복을 만들었다. 학교에서 준비한 교복을 입고 1학년 2학급 80명이 영락크리스천스쿨 첫 학생이 되었다.

잠비아의 초등학교는 1년 3학기로 7학년 과정이

다. 정부에서 주는 공식 교과서도 없었으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사들에게 틈나는 대로 교수법을 가르쳐야 했다. 부모들이 대부분 문맹이며 라디오도 텔레비전도 없기에 가정 통신문을 들려 보내도 아무도 회답을 가져오지 못하기에 구두로 전달해야만 했다.

비닐봉지가 책가방인 아이들은 그 비닐봉지 안에 들어 있는 공책과 연필이 없어질까 봐 쉬는 시간에도 비닐봉지를 들고나와서 본다. 그러다 비닐이 찢어지면 그 찢어진 비닐로 공책을 둘둘 말고 다니는 일도 생긴다. 그래서 매년 입학 때마다 형 짚 가방을 만들어 주었다. 그동안 경제가 발전해 부모들이 일자리가 조금씩 생기고 생활 여건이 조금씩 좋아지니 지금은 책과 문구를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오는 아이는 별로 없다.

2015년 영락어린이교회를 세우다

1학년 신입생을 더 선발해 2개 학년 160명이 되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해 아침 조회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고 매일 첫 시간은 말씀 큐티를,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체 예배와 성경 공부로 학교 수업을 시작한다. 교실을 교회로 사용하며 어린이만을 위한 주일예배를 드리다가 어린이교회를 세우는 비전을 품게 하시어 학교 안 정문 옆에 영락어린이교회를 짓기 시작했다. 어른들이 주일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닌, 어린이들만을 위한 잠비아 첫 번째 어린이교회였다.

교회는 학교 강당으로도 사용하고 지역 교회와 학교들에도 개방할 수 있게 지었다. 700명 이상이 앉을 수 있는 규모로 계단식 예배당을 건축했다. 선교센터로 사용할 선교동과 2개의 고아동도 건축했다.

2016년 영락어린이교회 예배당을 헌당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영락어린이교회의 헌당 예배에는 아들과 딸 가족과 작은 누님, 처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차재능 장로님 부부와 선교부 김의환 장로님 그리고 영락교회 의료선교부 대원들이 함께했다. 우기였기에 비를 맞으면서도 의료선교팀은 나흘 동안 우리 학생 240명과 주민 2,000여 명을 섬겨주었다. 특별히 의료 선교 기간 중 집사람이 환갑을 맞아 더욱 뜻깊은 헌당 예식이 되었다.

영락어린이교회는 주일예배에 700여 명이 예배 드린다. 부활절이나 성탄절과 성경학교 등에는 1,000명 이상이 강단 앞바닥에까지 나와 앉아서 불평 없이 기쁘게 아프리카식 찬양으로 예배를 올려드린다. 영락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오는 수많은 어린이와 예배드리고 학교 8개의 교실에서 성경을 공부하며 요절을 암송케 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훈련받은 교사가 부족해 안타까웠다.



현지 주민들에게 식수를 제공한다(2016)

2017년 한경직목사기념상을 수상하다

믿음의 선진이셨던 한경직 목사님과 최창근 장로님을 닮고 싶었다. 두 분이 이사장을 지내신 보성여중·고 행정실장을 지내며 선교 비전을 품게 하시고, 영락교회 선교대회 때 강사로 오신 하용조 목사님의 부름에 ‘보내는 선교사·나가는 선교

사’로 아내와 같이 일어서서 서원했다. 이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셔서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3년간 준비하고 목사안수를 받았다. 전문인 선교사 파송 6개월 후에 우리를 부르셔서 2012년 선교대회를 통해 협동선교사(자비량)로 파송해 주셨으며, 2017년에 제4회 한경직목사기념상 수상과 함께 상금 5천만 원을 받게 되었다. 잠비아 실정상 학교 시설 부족으로 인해 2부제, 3부제 수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학교는 1부제 수업이라서 교실이 부족했다. 때맞춰 주신 상금으로 필요한 교실 6개를 새로 건축하고 우리 숙소도 지을 수 있었다.



2017 한경직목사기념상을 수상하는 김서영 선교사

2018년 6개월의 안식년을 보내다

10년 서원을 마친 후에는 모든 사역을 현지인에게 양도하고 떠날 수 있기를 기도해 왔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학교를 영리사업으로 생각하기에, 누구에게 맡기더라도 우리의 비전인 ‘가난한 이를 위한 무료 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10년 사역 후 우리 사역을 맡을 수 있는 교회나 단체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며 6개월을 안식년으로 지냈다.

2019년 국제기아대책(FHI)과 사역을 공유하다

기도 응답으로 국제 NGO 단체인 ‘국제기아대

책'을 보내주셨다. 국제기아대책은 기독교 NGO임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활동한다. 이들의 구호인 '떡과 복음'은 우리의 사역 방향과도 정확히 일치해서 놀랐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건만 우리는 염려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국제기아대책에서 우리의 기도를 알고 우리 사역지를 두 차례 방문했다. 11월에 협약식을 맺고 2022년부터 우리 사역을 무상으로 이양받아서 사역 확장을 위해 우리 사역지에 국제기아대책 아프리카 지부를 설립하기로 했다.

2020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다

학생 수가 600여 명이 되었다. 매년 영남대학교 이공대학에 보낸 장학생이 총 19명이 되었다. 일주일 중 하루는 주님을 위한 날이듯, 만 60세를 맞으며 10년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해왔다. 그런데 코로나로 세상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학교도 3월부터 10월 초까지 문을 닫게 되었다. 은돌라 공항과 국경이 폐쇄되고 항공노선도 취소되던 그 기간에 주님은 우리의 건강상 안 좋았던 모든 부분을 드러내 주시고 필요한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셨다. 백내장 치료와 임플란트, 종합검진 등으로 건강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셨다.

첫 졸업생인 7학년 학생들이 12월에 국가진학고시를 치렀다. 2014년 코 홀리며 입학한 아이들이 7년간의 과정을 마치고 영락스쿨 1회 졸업생이 된 것이다.

2021년 '떡과 복음'의 사역은 계속된다

사역 이양을 위해 국제기아대책 아프리카 지부가 학교 안에 들어왔고, 빈민 아동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준비되고 있다. 올해는 2,000여 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 및 교육 구제 등 플랜을 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체온측정과 손소독을 하는 학생들(2021)

비하고 있다.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한날 기우였다. 우리 부부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하신다.

이곳에도 많은 도전이 있다. 북부 아프리카에서 내려오는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여호와와의 증인도 있다. 심지어 구원과 박옥수가 1시간 거리쯤 떨어진 잠비아 제2의 도시 키트웨의 대학에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작년부터 코로나19로 교회에는 정해진 인원만 들어올 수 있다. 올해 들어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교사와 리더 찬양대만 참석해 주일예배를 섬기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앞서 계시고 뒤에서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며, 힘들 때마다 주님을 느끼고 바라보도록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 같은 사역지에서 오 늘도 눈물로 찬양한다. 아프리카에서의 10년은 우리 부부에게 한없는 은혜요 축복이었다. **만남**



김서영 선교사
잠비아 영락크리스천스쿨 설립자
잠비아 영락어린이교회 담임목사

눈을 들어 받을 보는 제2남선교회

“너희는 너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받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요한복음 4:35)



2021년은 교회 표어와 맥을 같이하고자 “눈을 들어 받을 보는 제2남선교회”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받은 벌써 희어졌고 추수할 때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한 온택트시대를 잘 극복하기를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자유로운 예배 회복과 선교 모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선교사역을 잘 감당해 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갈급한 마음으로 언제나 성전에 나와 가난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우고 목소리 높여 찬양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2남 선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시작이요 함께 지키는 것은 믿음이요 함께 일하는 것은 승리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지상 명령에 순종합시다. 더욱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힘을 모으고 일에 맞는 능력을 받아서 추수하는 일에 일꾼으로 동참하여 선교 공동체에 힘이 됩니다.

올해 2남 선교회의 방향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성령으로 하나되는 선교 공동체”가 되자 합니다. ‘하나되는 진리’는 주의 일을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화요기도 모임을 통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찬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회원 간에 관심과 사랑이 넘쳐서 회원배가운동을 실시하여 선교 목표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인 선교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해외선교지원과 국내선교지원 등 선교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 선교 훈련과 기도와 물질로 서로 동참하여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 사명을 굳게 감당해 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양질의 선교 교육과 해외선교 참여로 회원들의 선교 비전을 확실히 고취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전 회원이 책임 있는 선교와 선교 공동체를 형성할 것입니다.

셋째, “감사가 넘치는 선교 공동체”를 소망합니다. 가정과 직장에서의 감사, 교회와 각 지회 모임에서의 감사 등 모든 모임에서 서로 친교하며 감사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된

어려운 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섬김으로, 위로와 사랑을 함께 나눔으로써 회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감사가 넘치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남**

제2남선교회 중점사역

1. 선교 부문

- ① 국내선교부서의 활성화를 통해 모든 회원이 선교 현장에 동참하는 역동적인 선교
- ②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교회를 선정하여 환경 개선 및 지원 선교
- ③ 해외선교보고 및 지속적인 지원 선교에 함께 참여하는 실천적인 선교
- ④ 각 지회와 선교사님 간의 ‘1:1 결연’을 맺고 기도 후원 및 지원 선교
- ⑤ 자라나는 새 생명 어린이 사역을 지속해서 지원하여 열매 맺는 선교
- ⑥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세워 열매를 거두는 어린이 선교사역 실행

2. 조직 부문

- ① 효율적인 회원 관리를 통해 회원 배가에 집중하는 선교 공동체
- ② 지회의 성장을 돕는 적극적 지원과 회원 만남의 날 행사 연속성 추진
- ③ 회원 심방 및 경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회원 관리하는 선교 공동체
- ④ 부서 중심의 부서별 친교로 회원이 함께하는 친교 공동체
- ⑤ 지회별 연합사역을 통한 지회 부흥 및 화요기도 모임 참석 유도
- ⑥ 신입회원과 기존회원간 소통으로 함께하는 공동체

3. 교육 부문

- ① 화요기도 모임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는 선교 공동체
- ② 회원들의 신앙과 삶과 섬김이 구체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영성훈련
- ③ 지속적인 소그룹 구성과 말씀 지원 및 소그룹 말씀 나눔 공동체
- ④ 선교특강과 찬양기도 모임을 통한 선교적 비전과 영성 회복
- ⑤ 온라인 모임과 말씀 선교 보고와 선교 간증으로 화요기도회 활성화
- ⑥ 문화행사와 연합 체육행사를 통한 친교 공동체 형성



임우섭 장로
중구·용산교구
제2남선교회장

충성!! 제2여전도회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군부대교회(12사단 포성교회)를 방문한 선교부 임원진과 제2여전도회 회원들

매달 둘째 주 수요일 오후 2시!

제2여전도회 중앙회 실행위원들은 일상의 모든 것을 멈추고 손에 있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홈쇼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의 뉴스를 찾아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손에 들려 있는 휴대폰 속 카톡방에서 은밀하고 경건한 작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18개 지회의 지회장과 부서별 실행위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휴대폰을 실행위원회 장소로 삼고, 말씀묵상, 대표기도, 목사님 말씀, 합심기도 및 축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온라인 경건회를 합니다. 경건회 시간부터 회무 처리에 이르기까지 대면 회의와 같은 순서로 40~50분 정도 진행되는 회의를

마치고 나면, 긴장하여 올라갔던 어깨가 내려오고 참았던 숨을 내쉬게 됩니다.

제2여전도회는 우리 교회 53~62세 여성 성도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교자치단체입니다. 현재 교구별로 구분된 18개 지회를 두고 8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두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 새로운 기술과 첨단 기기에 서툴고 옛날 것을 고집하는 아집도 있으며,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 피하고 싶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모임을 원하며 애쓰는 이유는 우리 제2여전도회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제2여전도회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한 온라인 실행위원회로 회원들간의 유대감을 이어가고 있다

교회 내 다른부서와 마찬가지로, 제2여전도회도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로 인해 모임이 허용되지 않아 사역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라고 하시며, 모일 수 없다면 모임을 대체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66명이 참여한 단체 카톡방은 대면과 다름없는 비대면 실행위원회 모임으로 거듭났습니다.

올해 우리 제2여전도회 사역은 언제나 그랬듯이 선교, 교육, 봉사입니다. 하루 앞을 몰라서 흔들렸던 2020년이었지만 제2여전도회의 중점사역인 군선교와 국내외선교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올해도 저희 제2여전도회는 함께하시는 주님 붙잡고 주님 이끄심 속에 나아갈 것입니다.

지난해, 코로나의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제2여전도회 회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백마누리교회의 헌당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새로운 사역으로 12사단 제5776부대 포성교회 내부 리모델링 공사와 56사단 218연대 노고산교회의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비롯하여, 9사단 30연대 한마음 교회의 카페용품, 9사단 28연대 백마상

승교회에 악기 및 운동기구도 지원했습니다. 또 군부대 장병들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병들의 간식을 여러 부대에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점 급변하고 있는 군부대 상황에 맞는 섬김과 지원을 위해 우리 제2여전도회는 기도하며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면 모임이 불가능하다면 그에 대체할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리라 믿으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떡을 나누며 입을 열어 큰소리로 기도할 날을 속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2여전도회의 문을 두드려보시지 않으시겠어요? 사명의 발로 나오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미숙하지만 함께 도우며, 부족하지만 함께 나누고, 힘들지만 함께 짊어지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제2여전도회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주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만남**

제2여전도회로 오세요

대상 : 국내외 선교에 관심있는 만53~62세 여자 성도

중점사역 : 군선교

문의 : 선교부(2280-0141)



강신재 권사
노원교구
제2여전도회장

비대면 시대 ‘전도의 기술’ 택배기사 섬기고, 안쓰는 물품 나누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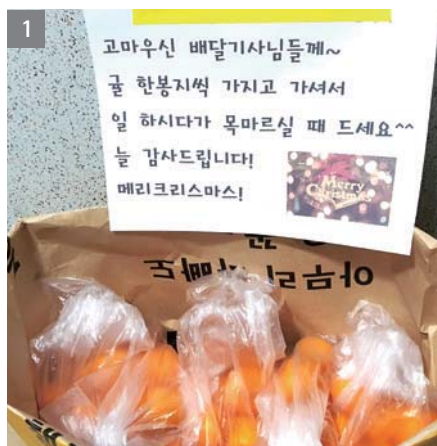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도록, 성령님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2020년 1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저의 섬김의 삶 중 가장 먼저 막힌 곳이 병원 전도였습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고려대 안암병원과 경희의료원 두 곳의 환자들과 가족들께 찾아가 아픈 마음의 소리를 들어드리고 회복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터였지만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을 위해 외부인 출입을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주만 지나면 다시 환자분들께 갈 수 있겠지 생각했으나 1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이렇게 대면 전도할 수 없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호와이레로 예비하신 <119말씀>과 <한친구운동>을 통한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삶으로 해석해 보고자 노력하지만,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대화 금지’ 표시로 알 수 있듯 오늘의 현실은 각박합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게 됩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많이 변화되어 대면 전도도 제약이 생기고, 이웃에게 다가가기도 어려운 이때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재택근무를 해 오고 있었고, 최근에는 아이들까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 온라인 주문이 증가하던 중에 뉴스를 통해 배달 기사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실은 작년 여름에도 아이스박스에 얼음물을 담아 더운 날 배달 기사들이 드시도록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12월 초 기도로 지혜를 구



하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즈음 마침 한 박스의 쿨이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배달 기사들께 드릴 감사 인사 메시지를 넣은 쿨을 나누어 담은 봉지를 현관문 앞에 놓았고, 성탄절 즈음에는 노방전도에 사용했던 솔라C 비타민과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적힌 전도지를 쿨 봉지에 함께 넣었습니다. 초콜릿이나 사과자, 음료 등 간식도 번갈아 넣었고, 한파일 때는 핫팩도 한쪽에 넣었습니다. **(사진1)** 전도할 때 사용하려고 개인적으로 사 놓았던, 선물같이 예쁜 표지로 제작된 요한복음 쪽복음도 한쪽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사진2)**

쪽복음 구입처 <https://www.hosanna.net/okbible/> 뒷면 겉표지에 교회예배 안내 인쇄 제작도 가능. 재작년 전도부에 제안해 전도용으로 소량 제작. 핵심 복음과 영접 기도문이 함께 구성되어 전도용으로 추천합니다.

정말 기쁜 일은 자원해서 성경책을 가져가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택배기사는 문자로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핫팩 감사합니다”, “간식 감사합니다” 등등 고마움을 표현해 주시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연세 지긋하신 기사님은 제가 6층을 누르니 혹시 605호냐 물어보시고 “제가 종종 간식 정말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도 해주십니다.

간식을 챙겨 현관 앞에 내놓을 때마다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3:2)”,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마태복음 25:35)”,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40)” 이런 말씀들이 저를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하며 섬기게 하십니다.

코로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지혜는 당근마켓을 통한 나눔입니다. 그동안 일하며 살림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며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 구석구석을 세심히 살피지 못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교회에서 받았던 선물들과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하나둘 챙겨 당근마켓 (동네에서 중고물품을 직거래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나눔을 하게 하셨습니다. 무료 나눔의 경우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도 활짝 열려있으리라 여겨져 쇼핑백에 나눔 물건과 요한복음 쪽복음을 함께 넣어 드리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과연 이것도 누군가에게 필요할까? 싶은 물건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환경을 생각해도 손쉬운 버림보다 지혜로운 나눔이 이웃 섬김과 전도

최고의 거래 였어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아주 꼼꼼하고
 친절 했어요.
 먼지 투성이 폐자전거 무상수거나
 고치실 것 있으면 당근으로
 연락주세요. 제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짜입니다.
 영락교회의 신앙 깊은 신도님 이시네요.
 저도 교회를 가야 하는데 게을러서 요.
 댁내에 우한이 없고
 가족 한분한분에게 주님의 사랑과 축복이
 깃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 친절하고 매너가 좋아요.
- ✓ 시간 약속을 잘 지켜요.
- ✓ 상품상태가 설명한 것과 같아요.
- ✓ 무료로 나눠주셨어요.
- ✓ 상품설명이 자세해요.
- ✓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해요.
- ✓ 응답이 빨라요.

3

생명의 말씀까지 ~~
 그리스도의 향기
 진동함을 느끼게 하는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6:11 오후

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떤 집사님은 운동화도 여러 켤레 기증하셨습니다. 나눔 물건과 성경을 받으신 어떤 분들은 거래 후기로 “영락교회의 신앙 깊은 성도님 이시네요. 저도 교회를 다녀야 하는 데 게을러서요...”, “생명의 말씀까지~ 그리스도의 향기 진동함을 느끼게 하는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사진3) 믿는 분의 경우에는 ‘꼭 필요한 분께 전하겠습니다’ 등등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거저 받은 값진 생명, 값진 사랑, 아무 자격도 이유도 없이 그냥 베풀어주신 그 사랑을

알고 깨닫기까지 저도 수십 년이 걸렸듯이 오늘 흘러보낸 작은 나눔과 성경을 통해 한 영혼이 언젠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이 친히 일하시고 열매 거두시기를 기도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시대를 틈타 사단은 믿음의 성도들도 우울하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간교한 음성으로 우리를 지배하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 합력해 선을 이루시고자 2021년 상반기 비대면 전도훈련(제35기/3월 27일 개강)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작년 10월에 이미 기존 훈련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전도강화훈련을 시도하여, 비대면 전도훈련 및 비대면 전도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하였고, 대면 전도의 한계를 넘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대면 복음 제시를 통해 지방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등 은혜 사례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에 도전받아 해외에 계신 분들께도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복음을 전할 가능성과 복음 전파 지경의 확장성을 깨닫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코로나는 어쩌면 장애물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발상 전환을 해봅니다. 비대면 시대에도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코로나라는 디딤돌을 딛고 일어서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전하는 작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만남**



류화정 집사
 종로·성북교구
 전도부 실행위원

아침 단상

홍보출판부가 매월 발행하는 『만남』은 영락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만남과 소통의 장(場)입니다. 편집위원과 교열위원, 취재기자로 수고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거쳐 나오는 책자이지만 그 안에는 성도님들의 신앙 이야기와 함께 『만남』을 향한 독자 교우들의 성원도 같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홍보출판부 사무실 한쪽 서가에는 지난 1973년 2월 15일에 발간한 창간호부터 올해 2월호까지 총 564권의 『만남』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꽂혀 있습니다. 빼곡히 꽂힌 지난 호들을 살펴보고 있으면 48년 동안 새겨진 ‘만남과 소통’ 기록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한 변화의 흔적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15여 년 전 편집장으로, 올해는 부장으로 홍보출판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만남』이 나아갈 바를 고민하며 몇

가지 새로운 방향성을 더하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내의 전문 필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양한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영락 성도들의 칼럼을 게재함으로써 교회를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울곧은 시선들을 담아내겠습니다. 그리고 3040 세대를 비롯한 젊은 층과 호홉하며 영락 공동체의 미래와 희망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만남』이 선배들이 물려주신 영락의 신앙 유산을 바탕으로 젊은이들의 신선함과 발랄함이 어우러지는 세대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벽두 아침 단상과 함께 적어둔 기도문을 자주 찾아봅니다. 아래의 기도문을 항상 생각하며 올 한 해 신앙공동체를 섬기고자 합니다. 『만남』을 향한 성도님들의 성원과 제언에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만남**

빛과 진리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저희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주의와 배금사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진리의 뜻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 도처에 창궐하는 우상 숭배와 유물사관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릇된 구원을 설파하는 이단 세력들을 구별토록 하시며 적그리스도 세력을 담대히 대적하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인도해 주옵소서.

위정자들이 “악법을 제정하는 자 해 있을지어다”의 성경 말씀을 명심토록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며 슬기로운 시책을 펼치는 지혜의 일꾼 되게 하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영락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해주시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땅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마다 형통의 큰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양지청 장로
서초교구, 홍보출판부장
GDI 회장
前 KAIST ATU주임교수



선택과 우연의 연속에서 영락수련원을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인생은 우연과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인생을 개척해나가는 것 같지만, 자신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우연들을 마주할 때가 많기 때문에 생긴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연과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는 2019년. 저는 신대원 졸업 후 신학석사 과정으로 영성신학을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영성신학’은 신앙생활의 근간이 되는 기도와 영성을 학문적 및 실천적으로 탐구하는 분과입니다. 공부하기는 어려웠지만, 나름의 기쁨과 성취가 있었기에 저에게는 뜻 깊은 과정이었습니다.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길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방향을 이용해 관련 세미나나 모임에 참석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임과 세미나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관련 모임이 경기도 광주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임을 왜 경기도 광주까지 가서 해야 하나’ 생각했습니다. 당시 제게는 너무 멀고, 가는 길이 익숙하지 않은 곳이라 모임에 참석해야 할지가 고민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으로 검색해보니 1시간 20분이 걸린다고 하니 저는 안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같이 공부하던 동료 전도사님이 꼭 가고 싶은 모임이라며 동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료 전도사님은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었지만 저는 꽤 오래된 연식의 소형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안 가면 그 분도 갈 방법이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 운전을 담당하기로 마음먹고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의 안내로 드디어 목적지에 가까이 들어섰을 때 너무나도 험한 산길이어서 매우 당

항했습니다. 그때까지 제 차가 승차감이 나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으나, 산길을 운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날 깨달았습니다. 소형차로 구불 구불한 산길을 운전하니 운전자인 저도 멀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굽이굽이 돌아서 도달한 산꼭대기에 모임 장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처음으로 ‘영락수련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락수련원의 첫 기억은 ‘맑다’였습니다. 정말 맑은 날씨의 여름에 찾은 영락수련원의 자연과 분위기는 형언할 수 없는 포근함과 함께 상쾌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모임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도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상쾌함은 영락수련원 근처를 산책하면서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지금도 영락수련원을 방문하는 분들께 꼭 추천하는 산책로를 그때 처음 걸어봤습니다. 바로 예수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산책로입니다. 여섯 개의 조형물과 한 개의 십자가로 구성된 예수님 생애를 묵상하는 동산은 우리 삶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자연 속에서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는 보물과 같은 산책로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찍은 사진은 저의 SNS 프로필 가장 앞면을 한 동안 장식했습니다. 그렇게 모임을 갔다가 영락수련원의 푸르른 풍경 사진만 찍었던 저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영락교회에 와서 인천교구와 영락수련원을 섬기는 귀한 사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의 저는 영락교회에 부임하여 영락수련원과 인천교구를 섬기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영락교회를 선택한 제 모습과 6개월 전 우연히 영락수련원을 방문한 제 모습을 보면서 선택과 우연의 뒷면에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꼈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관한 놀라움과 하

나님께로 향한 강한 이끌림을 느낀 저는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사역은 절대 자의적인 선택과 노력으로 주어진 현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순종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와 한국의 교회가 힘겨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성도들과의 교제는 커녕 예배드리는 것도 제한된 상황입니다. 영락수련원도 방역에 힘쓰며 여러 사역을 진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들도 많았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라인 사역과 제한된 오프라인 사역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평소 수련원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환경에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사역이 생겼기에 영락수련원에서 진행하는 훈련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이전에는 없었던 보람을 깊이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기에 조심스럽지만, 코로나가 은혜를 받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연과 선택의 연속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일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연이라고 생각되는 일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음을 깨달아서 모든 일을 감사하며 기쁘게 누리는 3월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남**



윤형배 전도사
인천교구
영락수련원



작은 한 뿌리 내리게 하신 주님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

올해로 구역장을 맡은 지 6년째 되어 갑니다. 몇 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교구 성도들이 오셔서 장례예배를 함께 드리고 찬송을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후 교구 목사님이 ‘구역지도자반’을 권하셔서 수료하고 분당 오리역 근처, 36구역 구역장을 맡았습니다. 구역장이 되기에는 많이 부족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시작했습니다.

구역예배 첫날, 금요권찰예배의 말씀을 미리 출력해 여러 번 읽어 준비했지만 준비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고, 긴장한 나머지 얼굴과 머리가 땀으로 얼룩졌습니다. 예배 후 식사 장소로 이동할 때 구역원들이 예배 때보다 표정이 더 밝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분들이었지만 구역원들은 서로 잘 아셨고, 오랫동안 영락교회를 섬기며 봉사했던 분들로 이제는 은퇴하신 믿음의 선배님들이셨습니다.

어디서든 기도

어느 주일, 구역원이신 H집사님이 갑자기 만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팔십 초반의 집사님은 남편 없이 두 딸을 잘 키워서 출가시키고 이제는 홀로 사셨습니다. 한눈에도 안색이 나빠 보였습니다. 그분은 나지막한 소리로 “구역장님, 제가 어제와 오늘 혈변을 봤어요” 저는 깜짝 놀라면서, “병원에 가셔야죠. 저랑 지금 백병원 가시죠?” 그 분은 고개를 저으면서 “구역장님이 저기, 기도해 주시면...” 눈빛이 간절하셨습니다. 주일, 기념관 지하 1층에서 많은 성도님이 오가는 곳에서 아픈 배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용기가 섰습니다. “기도보다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나을까?” “기도해도 낫지 않으면, 내일 병원에 가야지요...” 저는 집사님의 배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장이 온전해져서, 혈변이 멈추도록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집사님은 “아멘! 아멘!” 하였고, 기도가 끝난 후, 한층 밝은 얼굴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해드렸지만, 병원에 꼭 가서 진찰받으시라고 당부하고 헤어졌습니다. 다음날 연락하니, 그 후로 혈변이 나오지 않았고 배도



유혜정 권사
성남·분당교구 36구역장

안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구역장님이 기도해주셔서 나왔다고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고쳐 주셨다고 말씀드리면서 그래도 병원은 꼭 가보셔야 한다고 권했지만, 집사님은 이후에도 아무 일도 없었고 소화가 잘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집사님의 믿음대로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제 믿음보다 그 집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구역장으로서 기도에 관한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집사님께 매주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게 되어, 운전하다가도 때로는 마트 구석의 기둥 뒤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어디서 기도하든 부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은퇴권사님이신 L권사님은 교구의 찬양대 대장이셨고 구역장이셨으며, 교구 봉사를 많이 하신 분이셨습니다. 찬양 목소리도 고우신 권사님은 구역예배 때, 직접 만드신 맛있는 약식을 나누어 주시거나 맛있는 간식을 챙겨 오시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의 학업 때문에 같이 살면서 갈등이 생겨 권사님은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되신 일을 구역예배에서 말씀하셔서 어린 손녀딸의 구원과 관계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구역예배에서 그 손녀딸이 권사님 곁에 다소곳하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보내주신 것 같아 모두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그 손녀딸은 그다음 주부터 영락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저와 함께 문화선교부에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손녀의 모습이 2021년 달력에도 나

왔다면 권사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교직에 몸담아 계시다가 은퇴한 후 부부만 사는 가정에서는 항상 구역예배 장소를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대접을 아끼지 않는 포근하고 따뜻한 권찰님, 어깨가 아프지만 혼자서도 씩씩하게 잘 지내시는 집사님이 함께해서 든든한 36구역이 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작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구역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항상 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딸 나이에 불과한 제게 “우리 구역장님” 하시면서 아껴주셨던 구역분들께 『만남』을 전해 드리면서 원하시는 분은 집 앞에서라도 기도해 드렸습니다.

쓰임 받는 뿌리로

구역장을 맡으면서 한 분 한 분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들과 기도 제목들을 나누면서,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웃으면서 영락교회 성도가 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역분들의 간증과 삶을 나누면서, 저도 그분들이 걸어가신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락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며 믿음의 뿌리가 깊은 분들인데 저처럼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으로서는 감격스러운 경험입니다.

그동안 문화선교부 활동에만 관심을 두었던 저에게 주님은 구역장 일을 통해서 영락교회의 깊은 뿌리 중, 작은 한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벗어나는 날, 36구역 구역예배를 아주 긴 시간 큰 소리로 찬양과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만남**

‘일진’ 삐딱이를 예배로 부르신 주님



저는 러시아 우수리스크에서 온 고려인 4세 차 안톤입니다. 생업을 위해 한국에 오신 부모님을 따라 아홉 살 때인 2003년 처음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부모님은 그전부터 한국에서 노동일을 하는 중 예수를 영접하여 교회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3년 만에 만난 아버지가 한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모습은 믿어지지 않았으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교회가 처음이었던 저는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머니와 같이 살았습니다. 한마디의 한국말도 모른 채 초등학생이 된 저는 부모님이 교회사역으로 알게 된 영락 교회 배종은 집사님을 통해 영락교회에 나오기 시

작했습니다.

영락교회 선교부가 부단히 노력하여 2005년에 러시아어예배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족은 그 자리에서 섬기면서 아버지 사역을 도우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단 하루도 쉽지 않았던 한국에서의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 헤쳐나갔습니다. 타국에 와서 노동일을 하던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사역을 작정한 날부터 우리 가정은 경제적인 여유를 누렸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백만 원도 되지 않는 사례비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었기에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매일 먹여 살리셨습니다.

중학생이 되고 사춘기에 접어들어 부모님을 원망했습니다. 왜 이렇게 먼 외국까지 와서 공부해야 하는지, 우리 가족은 어째서 교회에서 생활하고 항상 경제적으로 열악한지, 매일 정체성 혼란으로 괴로웠습니다. 교회에서 사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최소한 내 가족이 어디서든 부끄럽고 창피하지 않게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교회에서 러시아어권(구소련 지역)에서 온 노동자와 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는 부모님과 달리 중학생이던 저는 심하게 삐딱하게 행동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곤두박질치고, 결석이 잦았으며 동네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며 소위 말하는 ‘일진’으로 지냈습니다. 모든 것이 싫었고 아무 생각 없이 방탕하게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재판까지 받게 되었던 저의 모습에 부모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저를 러시아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전부 제가 자초했던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간 저는 할머니 댁에서 친형들과 생활했지만, 방탕했던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매일 그리워했고, 어떻게든 학교를 졸업해서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생각뿐이었습니다. 놀랍고 감사한 일은 러시아에서 생활하면서도 꾸준히 교회에 다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 아래 모든 것을 맡기며

러시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2012년에 부모님의 권유로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때부터 영락교회 러시아어 예배에 어머니와 나가기 시작했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입학은 제 생애 처음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효도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제대로 공부하지 않아 성적은 바닥권이었지만, 더 잃을 것 없던 저는 점차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싶어졌습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말씀 공부와 복음 전파에 관심이 더욱 많아졌으며 주님 나라의 확장에 몰두했습니다.

학교 졸업 전에 사회 경험을 쌓고자 대학병원과 무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마침내 저는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는 사역을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중학생 때와는 정반대의 다짐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게 되었고 러시아어권 나라들의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주위에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스펙이 아깝다며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창창한데 사역의 길을 성급하게 선택한 것 아니냐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겠다며 고백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일찍 주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열정이 가득하다고 대답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데,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을 지금 키우지 못하면 장차 다가올 심판의 날에 어찌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 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15)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한순간도 끊임없이 인도하시며 지켜 주셨습니다. 부모님의 어깨너머로 사역을 배울 수 있었기에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것을 바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의 주도권을 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영락교회 러시아어예배의 통역과 찬양을 9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권 국가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와 섬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러시아어권 국가의 비전을 향한 소명을 품고 열심히 겸손하게 섬길 예정입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을 맡기며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만남**



차안톤 성도
러시아어예배

자원봉사는 ‘예수사랑·교회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손으로~!

선배들의 손으로 벽돌을 날라 지었던 우리들의 성전, 우리 손으로 청소봉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간절히 필요하여 그 취지와 계획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합니다.

봉사의 성경적, 신앙적 의미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명확한 답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이유와 목적은,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마가복음 1:15)인 동시에 섬김과 봉사의 본을 직접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마가복음 10:45).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존재 목적과 사명도 이와 동일합니다. 주님께서서는 구원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실천하는 섬김과 봉사(마태복음 5:16)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적극적인 봉사에 대한 요청은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마가복음 12:30~31)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자신의 주변에 있는 이웃을 향해 반드시 흘러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인 봉사와 섬김의 행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봉사는 하나님 사랑의 근본 및 원천적 동기인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윤리

(로마서 13:8~10)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봉사는 우리들의 구원 문제와 연관이 깊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 신앙고백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의 수고와 선한 행실을 통해 하늘나라에 참여할 수 있음(마태복음 25:31~46)을 강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봉사 즉 디아코니아(diakonia)란 특정한 교회나 그리스도인, 기관이나 단체만이 감당할 일이 아니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항(야고보서 2:17, 22, 26)이 아닙니다. 봉사는 존재하는 모든 공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본질적 사명입니다.

봉사의 교회적 의미

봉사의 교회적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탄생한 A.D. 1세기의 초대교회를 고찰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발견하게 되

는 가장 큰 특징은 한 마디로 ‘봉사와 섬김’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무리, 공동체, 교회에서는 언제나 자발적 봉사와 구제, 나눔과 섬김(사도행전 2:44~45, 4:32~35)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의 원형은 이 세상의 목적과 방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는 온전한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초의 교회가 자원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공동체로 출발하여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봉사의 활동을 위해 과감하게 디아스포라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 일곱 집사(사도행전 6:1~7)를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교회의 직분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봉사를 위함이고, 그에 따라 직분자는 곧 봉사자를 뜻합니다. 또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연 안디옥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사도행전 11:24)하고, 봉사와 섬김의 본이 되는 바나바(사도행전 4:36~37)를 세워,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했을 뿐 아니라, 봉사와 섬김에 있어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서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사랑·교회사랑을 실천합시다!

자원봉사부는 요한1서 3장 18절의 “자녀들이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과 함께, 영락교회 전 성도님들을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초대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분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로마서 1:17)을 강조하면서도 그 믿음의 고백이 공중의 공허한 입술만의 증언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갈라디아서 5:6)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

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의(義)의 열매(빌립보서 1:11)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응답으로 올려 드릴 수 있는 최선이며 최고의 방법이 바로 봉사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특히 영락교회는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 자신의 생명과 목숨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아낌없이 헌신하고 섬겨온 수많은 무명 성도님의 봉사를 통해 세워져 왔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세상에서 볼 때 너무나도 이상한 사람들의 조용한 눈물과 남모를 깊은 헌신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김운성 위임목사님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사람들” 주일 설교)

이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향한 봉사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영락교회 성도로서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최재선 목사
자원봉사부, 청년부

눈을 들어 사회의 발을 바라보면서



※ 사진은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시점에 방역규정에 맞춰 촬영한 것입니다

사회의 발을 가꾸어 나가는 영락사회복지재단에도 2021년 새해의 밝은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항상 새 소망을 품고 출발합니다. 마치 철이 바뀌면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영락사회복지재단은 어떤 옷으로 새 단장을 할까 생각해 봅니다.

지나온 역사를 되새겨 보면 한경직 목사님께서 1939년도 신의주 보린원 설립을 효시로 이웃사랑과 청지기 의식으로 사회를 향한 사랑과 복지의 발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월남 이후 사회복지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1957년 복지재단 설립을 인가받아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작년에는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을 위탁받아 현재 13개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밭을 일굴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준비합니다. 시기와 때를 가늠하고 새싹이 나오면 날씨 변동에 민감해지니, 잘 자라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여 정성껏 가꾸어 갑니다. 그리고 수확의 계절을 기다리면서 예년보다 더 풍성한 생산을 기대하며 힘쓰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재단도 작년 작황을 확인하며 새해 계획을 세웁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닥친 어려움이 우리 재단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익사업과 후원금 수입이 줄어 작년 초 재단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작년도 작황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을 때는 그 결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만나

지 못했던 후원자님들이 작년 12월에 한꺼번에 후원금을 전달해 주셨고 한 후원자님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큰 금액으로 후원금을 납부해 주셨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전년도보다 많은 후원금이 들어와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작년에 각 시설에서 일어난 감사한 일들을 모아 보았습니다. 시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니 이 역시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기쁜 해였고 활기찬 해였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장님과 모든 직원이 청지기 사명으로 생활인과 맺은 돈독한 관계에서 나온 결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리원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퇴소해야 하는 5명의 원생 중 4명은 대학에 진학했고 1명은 취직하여 사회를 향해 활기찬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니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남시에 있는 영락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에서는 공모에 합격하여 스타필드 후원사업 지원을 많이 받아 노인치매예방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영락어린이집에서는 구에서 실시한 공모전 '수고했어. 오늘도'에서 두 명의 선생님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시설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한 바 있는 영락노인전문요양원은 좁은 진입로를 확장해 차량과 휠체어 이동이 쉬워졌으며, 침수 문제 해결, 이용인 주차 공간 등 환경을 개선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작년 말에 마지막으로 중증 장애인 시설인 영락애니아의 집 직원들이 크리스마스카드를 정성껏 만들어 후

원자님들께 발송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소식이 끊어졌던 후원자님들의 감사와 격려의 답신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예쁜 카드를 받고 울컥 감동하셨다는 분 등 많은 분으로부터 애정이 듬뿍 담긴 격려와 보고 싶다는 사랑과 감사의 답신 등을 받은 직원들이 함박웃음 지으며 감사의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기타 시설에서도 즐겁고 감사한 일이 다양하게 있었지만 모두 소개하지 못함을 못내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회의 넓은 발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비전이 아직도 많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특히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후원자 확충, 수익사업 다각화, 성인 중증장애인 시설, 보리원 원생들의 퇴소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재단의 임원들과 시설의 직원들은 올해도 열심히 일하며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보내주신 사랑과 나눔에 깊이 감사드리며 올해도 우리 영락사회복지재단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격려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남**



박남진 장로
용인·화성교구
영락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커피, 알고 마시면 약...잘못 먹으면 독



커피는 전설에 따르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남서부, 케파라는 곳에서 어린 목동 칼디가 우연히 발견했다고 한다. 염소와 양들을 데리고 뒷산 먼 언덕길을 올라 이름 모를 열매와 잎을 따먹으며 점심과 간식을 대신하고 해 질 녘까지 놀다 보니, 갑자기 염소들 몇 마리가 날뛰다. 무슨 일인가 달려가 보니 평소 보지 못했던 탐스럽게 열려있는 빨간 열매를 따 먹고 있다. 칼디도 다가가 주저 없이 맛을 본다. 상큼한 단맛이 난다. 숨이 가빠지고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놀란 가슴을 안고 소년 칼디는 녀석들을 데리고 열매를 가지고 어른들이 있는 마을의 중심인 모스크로 달려간다. 피곤함을

덜어주는 커피열매의 효능을 알게 된 마을의 종교 수행자들이 종교수행을 돕는데 사용한다. 이후 커피는 이집트와 예멘을 거쳐 유럽으로 전파된다.

커피는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섭취되는 향정신성 약물이며 그 주성분은 카페인이다. 카페인은 알칼로이드의 일종(질소 원자를 가진 고리 모양의 유기 화합물)이다. 커피나무는 열대 식물로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열매 안에 카페인이라는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놓았다. 인간을 제외한 포식자에게는 신경독이지만, 인간에게는 매력 만점인 식품인 셈이다

커피분자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을 흉내

내는데 아데노신은 뇌의 전기적 활동을 감소시키고 다른 신경전달 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아데노신은 우리를 쉬게 해주고 하루에 한번씩 잠을 오게 해주는 역할을 맡는데, 카페인인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하여 아데노신의 작용을 방해한다. 정신 작동을 중단시키는 물질의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다.

카페인을 신경 흥분제로써 많은 용량을 섭취하면 실제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각성 작용, 가슴 두근거림, 이뇨작용 등 생리 반응을 일으킨다.

커피 중에서도 원두커피에 가장 많은 카페인 함유되어 있는데, 보통 원두커피 1잔에는 약 103~112mg, 에스프레소 1잔은 약 200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마시는 인스턴트커피, 즉 커피 가루를 2숟가락 정도 넣은 커피 1잔에는 카페인이 약 60mg(커피 가루 1 스푼 당 카페인이 30mg), 들어있다. 카페인 제거 커피(Decaffeinated coffee) 1잔에 약 2~5mg의 카페인만 들어있어 카페인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효과적인 음료이다. 카페인의 치사량은 약 10g이지만 이 정도 섭취하려면 단번에 1백 잔 이상을 마셔야 한다.

적당량의 커피는 하루에 2~3잔

카페인을 운동기능과 반응시간을 경미하게 상승시키며(아드레날린 분비 촉진), 운동선수의 운동능력을 상승시켜서 더 빨리, 더 오랫동안, 더 씩씩하게 달릴 수 있다. 그래서 한때 IOC에서는 커피를 도핑물질로 규정했다. 커피와 카페인 다수의 질병과 연관되어 있으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갖고 있다.

긍정적인 효과로는 제2형 당뇨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치매, 간암, 결장암의 예방을 꼽을 수 있



커피나무는 열대 식물로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열매 안에 카페인이라는 천연 살충제를 만들어 놓았다

다.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이 인슐린과 당 대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하루에 3~4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이 커피를 전혀 안 마시거나 1~2잔의 커피 음용자에 비해 약 25%의 질병 예방 효과가 있다. 여성에게 더 뚜렷한 효과가 있었다. 커피 한 잔 당 약 6%의 당뇨병 감소 효과가 일어난다고 발표했다.

카페인 파킨슨병과 치매 예방에서는 더욱 확실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카페인의 한 유도체가 파킨슨병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을 정도이다. 또한 카페인 두통 증세나 우울증을 완화하는 작용이 있다. 커피에 내재한 항산화물질이 신경 보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커피를 하루 한 잔에서 석 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은 커피를 하루 한 잔 이하로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간암 발생률이 29% 낮았다. 일본 도호쿠(東北)대 연구팀도 커피를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의 간암 발생률을 1로 했을 때 하루 평균 0~1잔 마시는 사람의 간암 발생률은 0.71로 나타났다. 매일 한 잔 이상 커피를 마신 경우 간암 발생률은 더욱 낮아 0.58로 나타났다. 커피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인 클로로젠산, 폴리페놀,



카페인 등 100여 가지의 활성 물질이 간암과 간 섬유화의 위험을 감소시킨다.

그렇다면 카페인을 누구에게나 이로운 물질인가? 그렇지 않다. 카페인은 대사 과정에 개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마셔도 신경과민, 심계항진, 불면증, 흥분, 불안 등이 올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커피 분해 효소가 부족한 이유이다.

커피는 전반적으로 심혈관 계통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카페인을 자주 섭취하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진다(장기적으로 마시면 내성이 생겨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습관적으로 3잔 이상 마시는 경우 수축기혈압을 1.2mmHg 이 완기 혈압을 0.49mmHg 올리는 작용을 한다. 한

국 사람이 좋아하는 인스턴트커피(설탕, 크림이 들어간)는 오히려 심혈관 질환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커피는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 여과지를 사용하면(drip or filtered) 칼레스테롤, 카페인, 디터펜스같은 물질이 걸러지나, 그대로 마시면 혈청 지질을 올리는 작용과 혈압에 나쁜 영향을 준다.

또한 임산부의 과도한 커피의 복용은 위험할 수 있다. 통상 임산부의 하루 카페인 섭취 허용량은 대략 200mg 정도이다. 과도한 카페인으로 가는 혈류의 양을 감소시켜 저체중, 유산, 미숙아출산, 유년기 백혈병 등 태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여성에게 커피가 위에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 어린이들이 음료수에 들어있는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수면 부족으로 인한 집중력 저하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거나 사고 위험이 높고, 어린이는 카페인 대사가 잘 안되어 과잉 섭취할 경우 칼슘흡수를 방해하여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금까지 나온 카페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카페인이 알고 먹으면 약이고 잘못 먹으면 독이라는 옛말처럼 이 순간 커피 한 잔을 즐기에도 너무 과하지 않고 적절히 즐기는 현명함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만남**



문병수 성도
강남교구, 의료선교부
前 연세대의대 내과학 교수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영성 교육” 함께 달려가는 영락高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은 청소년들이 삶의 진로를 찾아 이웃과 사회를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과 역할을 발휘하는 인재로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과정입니다. 일반고는 상급학교인 대학 진학을 목표로, 특성화고는 취업을 목표로 자신의 진로를 찾는 교육을 수행합니다. 특히 우리 사회 특성상 일반고의 ‘진학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영락고도 다른 고등학교들처럼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락고는 세상의 고등학교들과는 다르게 귀한 소명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 닮은 주님의 자녀를 양육하는 영성 교육에 관한 소명입니다. 기독교 일반고인 영락고는 주님의 뜻을 이 사회에서 실천할 영적 자질을 갖춘 인재들이 대학에 진학하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업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특목고나 자사고와는 달리 영락고를 비롯한 대다수의 서울 소재 일반고는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게다가 영락고는 한 학년 당 7개 학급 150여 명의 소규모 학교라는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지만, 선생님들은 제자들이 각자의 실력에 맞게 허락하신 상급학교에 진학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

으로 헌신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치러진 2021년도 대입 수시전형에서 서울대 2명, 연세대 2명, 고려대 2명 등 서울 소재 주요 대학에 24명 합격(중복 합격 포함)을 비롯하여 4년제 대학 76명, 전문대 33명이 합격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깝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농부의 심정으로 땀 흘리며 애써 얻은 결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영락 성도님들과 기쁨과 은혜를 나눌 수 있어 영락고 선생님들 모두는 참으로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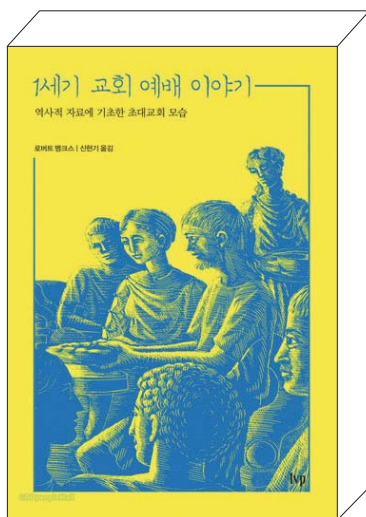
아직 최종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학생들, 대학 진학 대신 사회진출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앞날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영락고가 주님 안에서 향방을 올바르게 세우고 영광의 면류관과 상급을 얻기 위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과 한경직 목사님의 교육철학을 기억하며 기독교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만남**



김재호 교사
영락고등학교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 역사적 자료에 기초한 초대교회 모습



로버트 뱅크스 지음 /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IVP) / 80쪽

모든 교회가 닮고 싶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까? 이러한 질문은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 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모습을 떠올리며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질문 앞에 멈춰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분량은 얼마 안 되지만 초대교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고, 우리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본질적 성격을 고민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울림을 주는 책입니다. 실제로 저자인 로버트 뱅크스는

교회를 포기한 그리스도인들과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었던 적이 없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대하면 어머니 품에 있는 듯 따뜻한 감정으로 책장을 넘기게 됩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로마에 잠시 머물던 푸블리우스가 유대인 부부 아굴라와 브리스 가정의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받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 식사 자리가 시작되기 전까지 비밀스러운 모임처럼 생각했던 푸블리우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사랑을 경험하며 다음 모임에 자신을 초대해 준 것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다시 참여하고 싶은 자리가 된 그 날의 식사 자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닌 초대교회 본질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의 신분과 경제적 능력, 나이 등 사회에서 구분 짓고 순위 매기는 모든 기준이 그 안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안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만으로도 귀하게 여겨졌을 뿐만 아니라 서로 배려하며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처음 참석한 주인공을 환대하며 앉을 자리도 미리 정해주는 구성원들의 모습을 통해 이미 주인공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최선을 다해 그 모임을 준비했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이 더 잘 준비됐다고 자랑하기 보다는 함께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으며, 나눔을 위

해 자신의 것을 희생한 것을 또 감사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아직 오지 못한 사람들까지 배려하는 모습이 있었고, 중간중간 예배적 요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귀가하는 순간까지 작은 공동체에서 그토록 찾고 싶었던 교회의 본질과 다양하고 풍성한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건가?’라는 누군가의 질문에 이미 이 집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식과 순서로 진행되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이 근간이 되어 서로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모습에서 예배와 교회의 본질은 단순하면서도 실제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회성 모임이 아닌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삶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였으며,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했고, 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충만함’ 세 가지만 있으면 충분한 삶의 자리가 곧 예배의 자리이며 교회



가 됩니다.

이 책은 손에 잡으면 술술 넘어가고 단숨에 읽을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책을 덮는 순간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회복을 위해 내가 무엇부터 실천할 수 있을지 좀 더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갖게 합니다.

올 한해 그리고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와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찾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만남**



최한윤 목사
강서·구로·양천교구
북한선교부

통계로 본 2020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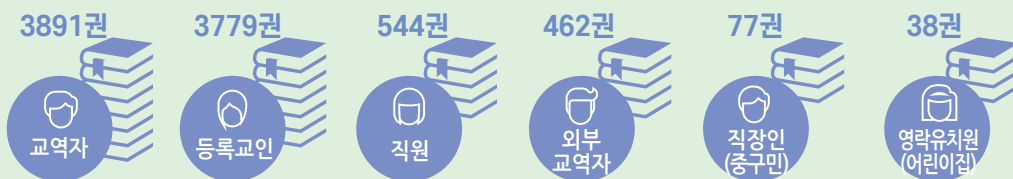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휴관, 위크스루 대출·반납 등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묵묵히 도서관을 이용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2020년에 이용자들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도서〈top 10〉을 소개합니다.

* 코로나19 방역 수준에 따라 변경되는 한경직목사기념도서관 이용 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library.revhan.net>) 공지 확인 또는 전화(02-2280-0293)로 문의해주세요.

교구별 대출 순위



이용자 유형별 대출 권수



대출 top10 도서

- | | | | |
|---|---|--|---|
| 1 마흔의 돈 공부

이의상
다산북스 | 2 요한과 더불어

이재철
홍성사 | 3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위르겐 몰트만
대한기독교서회 | 4 팩트폴니스 한스 로슬링, 김영사
5 담백하게 산다는 것 양창순, 다산북사
6 언컨택트 김용섭, 퍼블리온
7 시편을 마음에 채우다 존 파이퍼, 생명의 말씀사
8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김지철, 두란노
9 (그리스도인을 위한) 서양 철학 이야기 크레이그 바르톨로뮤, IVP
10 수학도둑 송도수, 서울문화사 |
|---|---|--|---|

온택트로 ‘슬기로운 신앙생활’ 코로나 속 신앙의 성장과 성숙

작년 초, 전염병의 등장과 함께 새 학기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했고, 새 손님을 기다린 사장님들은 텅 빈 가게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코로나19(COVID-19)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사한 탄환은 땅 위의 모든 곳에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한국 교회 또한 전염병의 방공호가 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전대미문의 팬데믹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고, 예배 중단이라는 사상 초유의 조치를 취해야했습니다.

‘주일에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것은 주일 예배를 삶의 제1 목적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지켜온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부의 방역 수칙 하달이 신약 속 ‘큰 지진과 기근’과 같은 절망적 사건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거리두기 수칙이 정해지고 실행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는 안팎으로 큰 갈등과 논쟁을 겪기도 했지요.

언택트(untact)에서 온택트(ontact)로, ‘프로젝트 라파’의 비대면 합창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세계의 정치, 사회, 문화

지형의 변동을 야기하며, 문명사적 의미를 지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영향력만큼 관련된 신조어들이 수도룩하게 등장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언택트’, ‘K-방역’ 등과 같은 단어의 탄생은 코로나의 막강한 영향력을 반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신조어 속에는, 코로나로 인한 부정적인 위기의식뿐만 아니라 사상 초유의 팬데믹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기민한 대처능력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예컨대 ‘코로나 블루’라는 표현에는 코로나가 초래한 우울과 절망이 나타나 있지만, ‘K-방역’과 ‘랜선여행’(인터넷으로 여행을 한다는 의미)과 같은 단어는, 코로나를 돌파해낸 우





리들의 에너지와 창조력을 드러내고 있지요.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분위기를 뚫고 나서는 새로운 변화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거리두기라는 초유의 조치는 교회를 ‘온택트의 울타리’로 묶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의 신앙심, 또는 본성은 억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누운 풀이 다시 올라오듯이, 강력한 생명력을 지닌 우리들의 신앙은 ‘온택트’를 타고 새롭게 펼쳐졌던 것이죠.

‘유튜브’나 ‘줌(zoom)’과 같은 새로운 ‘만남의 광장’ 또는 ‘플랫폼’은 온택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만남을 확장하고 촉진했습니다. 예컨대 ‘프로젝트 라파’라는 유튜브 채널은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찬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코로나의 거리두기 수칙에 대응해, 여러 학교의 음악 전공생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연주를 촬영하고, 이를 하나의 합창으로 편집한 찬양 콘텐츠들

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콘텐츠는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감동과 은혜를 표현한 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서울대, 줄리어드 등 각자의 음악학교에서 공부했던 기독교 청년들이 이처럼 시공간을 뛰어넘어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코로나라는 장애물 덕분이었습니다. 덕분에 코로나로 교회에 나갈 수 없었던 유튜브 속 기독교인들은 그들을 통해 기독교 청년들의 진정성에 감동받고, 그들이 하늘을 향해 올리는 찬양의 열기에 감응할 수 있었죠.

지난 1월, 우리나라 CCM의 대표적 찬양사역팀인 어노인팅은 자체 예배캠프를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진행했습니다. 온택트에 익숙해진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온라인 예배캠프에 이질감 없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평소에 갈수 없었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이런 댓글은 온

텍스트 속 예배와 찬양이 갖고 있는 ‘선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은 새로 자란다’

밥을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매 주일 자연스럽게 출석했던 ‘유형(有形)의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은 광야에 던져진 것과 같은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교회 건물, 교회 예전, 교회 제도’는 무의미한 객체가 아니라 우리 삶과 분리할 수 없는 영혼의 일부가 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신학계에서는 ‘종교 중독’이라는 개념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종교 중독’은 자신이 속한 개별 교회나 목회자에 대한 애정이나 헌신이 왜곡되어 집착과 추종으로 변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비록 ‘종교중독자’는 아닐지라도, 이 말의 함의를 고민해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비대면 예배가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는 것은, 익숙했던 무리와 집단의 정체성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자신의 신앙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기독교 신앙과 말씀의 본질에 대한 열망은 더더욱 확장됐을지도 모릅니다. 코로나로 인한 단절이 어찌면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말한 ‘신 앞의 단독자’로서 바로 설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은 시기, 온라인 속 기독교 관련 콘텐츠들은 호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믿음 생활에 관한 여러 질문을 답해주는 CBS의 유튜브 채널 ‘잘잘법(잘 믿고 잘 사는 법)’의 높은 인기가 대표적 예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비대면 시대를

맞아 온라인으로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거나, 기독교 관련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검색하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 광야로 내던져진 기독교인들은, 다시 자신이 속한 교회로 돌아오기 전, 자신들만의 성숙과 발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비대면 시대의 ‘새로운’ 교회를 상상하다(대한 기독교서회)』의 공동저자인 장신대 김은혜 교수는 “비대면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기술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서적·영적 접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목회를 재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해 시작된 비대면 찬양과 예배가 잠깐의 트렌드가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존속할 새로운 규범이 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지요.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한 IT 기술과 새로운 소통의 방법들이 신앙의 본질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차분히 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이 펼쳐질 미래에 큰 값을 치르고 얻어낸 소중한 배움을 잘 실현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



안동현 성도
강남교구
홍보출판부 편집위원

채찍에 맞는 그리스도 (Flagellation of Christ)



이 작품은 빌라도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질하는 장면이다.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는 X자형이다. 예수님의 머리와 등 발꿈치에 이르는 선(\\)과 또 다른 사선은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의 인물 다리에 연결되는 선(/)이 그것이다. X자형이 교차하는 부분에 예수님의 상처 난 등이 위치하고 있다.

힘껏 휘두르는 채찍에는 날카로운 뼈와 금속 조각들이 달려있다. 채찍질하는 군인들의 표정을 보면 그들은 매질하는 데서 쾌락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채찍질로 십자가에 달리기 앞서 예수님을 거의 초주검 상태로 만들었다(마태복음 27:26). 채찍에 맞기 전에 이미 심하게 구타당했다는 것을, 얼굴이 검게 표현된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마가복음 14:65).

실제 예수님의 등은 이 정도 상처로 끝나지 않았다. 살가죽이 완전히 찢겨 뼈가 드러나고 피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작가 루벤스는 채찍질이 가해진 초기 모습을 그리고 싶었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고난 겪는 처참한 장면을 자세하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지 모른다. 그는 오히려 전체 분위기와 등장 인물의 표정과 움직임들 통해 예수의 수난 장면을 부각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화면 중심에 참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작품을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충격을 줄지 모르고 작가가 추구하는 작품

의 유미성(唯美性)을 해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억제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을 대하는 사람들은 루벤스가 예수님의 수난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그림을 그렸음을 알 수 있다.

이 그림에는 예수님 외에 네 명의 인물과 한 마리의 개가 등장한다. 채찍을 휘두르는 인물 외에 두 명이 가시나무 다발로 만든 채찍(매)을 들고 내려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이 취한 동작과 눈길은 잔인성을 더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가장 오른쪽 인물이다. 그는 오른발로 예수님의 오금을 짓누르고 있다. 고통으로 인해 요동치는 예수님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이거나 무릎을 꿇리려는 것일 것이다. 우측 하단에 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다. 이 개는 자신이 공격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왼쪽 하단에는 쌓아놓은 회초리(혹은 매)들을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채찍질을 전문으로 하는 자들 같다.

페테르 파울 루벤스(Peter Paul Rubens, 1577~1640)는 독일 태생으로 17세기 바로크 미술을 대표하는 벨기에 화가이다. 역동성과 강한 색감을 추구하는 바로크 스타일의 대표적인 화가로, 생전에 3,000여 점의 많은 작품을 남겼다. **안남**

교회소식

news letter

‘교회에 덕이 되는 제직’ 2021 제직부흥회 열려

2021년도 제직부흥회가 목양부 주관으로 지난 2월 21일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다. 2주간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던 예년과 달리 금년도 제직부흥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회로 축소 조정한 가운데 예배당 예배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하여 열렸다. 황광용 목사(목양부 지도)의 인도로 진행된 이번 부흥회에서는 목양부장 지동춘 장로의 기도가 있는 후 예방통합 증경총회장 박위근 목사(염천교회 원로, 사진)가 로마서 12:3~13절을 본문 삼아 ‘잘 섬기는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날 설교에서 박 목사는 “제직들은 신앙공동체 안의 한 지체로서 늘 감사함으로 열심을 품고 기도해야 한다”면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부여받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교회에 덕을 끼치는 제직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하



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언급한 박 목사는 “영락교회가 성령의 큰 능력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한국 교회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권면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취재 김경옥 선임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우리 시대의 발을 보라! 교육부 교사 신년 온라인 기도회

교육부(부장 정천우 장로)가 주관하는 교육부 교사 신년 기도회가 지난 1월 23일(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비대면 기도회로 열렸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1부 순서에서 주제 강연을 맡은 백성우 교육전문목사는 ‘우리 시대의 발을 보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 ‘보는 지혜와 은혜’에 중심 가치를 둔 교회교육을 언급하며 다음세대들이 ‘하나님의 인격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성에서 본질로, 개인에게 인격으로, 변형에서 생명으로’라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들과의 대담에서는 최재선(청년부), 이영호(중등부), 신주현(아동부), 홍지연(영·유아·유치부)

목사가 패널로 참여하여 주제 강연에서 제시된 교회교육의 새로운 방향성을 놓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패널 대담 후에는 부서별 기도제목을 놓고 온라인으로 참가한 모든 교사들이 공동 기도를 드렸으며, 계속해서 교육부장 정천우 장로의 진행으로 교육부 소개와 임원진 인사가 이어졌다. 한편 줌(zoom)을 통한 교육부서별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된 2부 순서에서는 부서별 대화의 시간을 통해 교육 공동체로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속적 인 기도사역을 다짐했다.

제공 교육부

여전도회 헌신예배 “헌신의 시작점은 ‘사랑’입니다”



여전도회 헌신예배가 지난 1월 17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열렸다.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맞춰 최소한의 1~4여전도회 임원들만 본당에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려진 이날 헌신예배는 구성숙 권사(제1여전도회장)의 인도로 시작하여 강신재 권사(제2여전도회장)의 기도가 있은 후 김운성 위임목사가 ‘기꺼이 받으시라(요한복음 12:1~

8)’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운성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하나님은 헌신하는 마음이 가식 없는 진정한 사랑일 때에만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전하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지 우선 점검해야 한다”면서 여전도회 회원들로 하여금 올바른 헌신의 시작점을 돌아보게 했다.

이어 여전도회연합찬양대 중창팀의 봉헌찬양과 봉헌기도가 있은 후 특별영상을 통해 여전도회 사역보고가 진행됐다. 1여전도회의 농어촌선교, 2여전도회의 군선교, 3여전도회의 영락교회 파송 선교사 지원을 비롯한 해외선교, 4여전도회의 선교사 자녀 후원 ‘M.K 사역’ 등 각 여전도회의 중점 사역이 소개됐다. 이번에 봉헌된 헌금은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사역에 쓰일 예정이다

취재 이재향 기자 사진 원종석 기자

영락교회 베드로부



베드로부는 사랑입니다.

“눈을 들어 발을 보라” (요 4:35)



다시 2021년 수능을 준비합니다
또 해야하는 공부,
1년이라는 시간이 마음을 어렵게 하지만
함께해주는 이들이 있기에 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주님,
 임마누엘 선생님, 임마누엘 선배, 임마누엘 벗님들,
 기도하며 위로하고 힘주고 힘받는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의 은혜공동체입니다.



예 배 : 매 주일 오전 8시30분 기념관 503호
문 의 : 전의혁 선생님 *010-8996-5373


베드로부


yn_peterclass


Peter Class-베드로부

2021년 온라인 교육(예정) 안내

우리 교회에서는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교육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IT미디어부 주관으로 온라인교육 포털사이트를 오픈하여 여러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도 온라인교육 사이트를 통하여 많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온라인교육 사이트 접속방법

- 교회 홈페이지 회원가입 www.youngnak.net
- 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교육' 아이콘을 클릭
→ '온라인교육 바로가기'
- 아이디 / 비밀번호 입력 후 온라인교육장에 입장
- 희망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신청 및 수강하시면 됩니다

현재 수강신청 가능한 과정 목록

교육과정	교육대상/내용	교육신청	교육일정 및 시간	문의
2단계 양육 (핵심/일반)과정		온라인교육 사이트에서 신청 (교육기간 내)	3. 1~10. 31	제자양육훈련부 (02-2280-0312)
3단계 소그룹리더 훈련과정				
새가족교육	본 교회에 새로 나온 새가족 모두	새가족 등록을 마친 후 교육신청	총 5주차 교육	새가족부 (02-2280-0319)
제직교육	제직 (권사, 남, 여 서리집사) 후보자	2.5 ~ 3.5 교구전도사에게 신청	3.14 이후 홈페이지와 주보에 공지 예정	목양부 (02-2280-0121)
선교세계관 (2단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성도들	2.21 ~ 3.5 온라인교육 사이트에서 신청	3.6~5.22 (토 10시 강의 오픈)	선교부 (02-2280-0307)
선교현장영어	영어로 복음을 전하기 희망하는 성도들			
68기 신입교사교육반	교회등록 1년 경과 세례교인중 교사 희망자	3.14 ~ 3.28	(1학기) 4.4~6.13 (2학기) 9.5~11.21	교사교육부 (02-2280-0369)
상담대학	(2년 4학기제) 교육수료 후 평일 봉사가 가능한 60세 이하의 제직	-	(1학기) 2.28~6.20 (5/9 휴강) (2학기) 8.29~12.19 (9/19 휴강)	상담부 (02-2280-0306)
상반기 전도(폭발) 훈련학교-토요반		~2.28 교회 홈페이지 참고	3.27~6.19 매주 토 14~16시	전도부 (02-2280-0336)
교회음악 아카데미	교회음악에 관심있는 성도들	교회 홈페이지 참고	3.29~5.31(10주) 매주 월	음악부 (010-5428-4748)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신규가입 안내

주님 사랑하시는 영락교회를 위하여 오랜 세월 헌신봉사하신 은퇴제직 여러분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본 상조회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하신 제직만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본 상조회 회원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가입 자격**: 2020년 12월 31일자로 은퇴하신 제직에 한하여 가입 신청을 받습니다.

▶ **가입 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6월 27일(주일)로 마감합니다.

▶ **가입 장소**: 50주년기념관 1층 회비 수납장소 (은퇴제직상조회)

▶ **가입 절차**: 수납창구에 비치된 가입원서를 수령하여 본 교회 교적부와 일치하게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수납창구에 제출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참고사항

① 회원자격: <상조회 회칙 제5조 1항>

본회는 영락교회에서 제직으로 헌신봉사하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 교역자 및 장로(협동 포함) 안수집사 권사 남녀 서리집사로서 은퇴 후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성하며 은퇴 후 6개월 이내에 소정가입절차를 마친 자로 구성한다.

② 회비 납부의무: <상조회 회칙 제8조 2항>

- 가입비: 10만원(1회만 납부)
- 연회비: 신규가입 시 2만원 그후 매년 1만원
- 부조금: 정회원 별세 시마다 1만원

③ 수혜사항: <상조회 회칙 제9조 1항, 8조 2항>

- 부의금: 6,000,000원 지급(의무이행 시 최대 6백만원 일시지급)
- 만 88세 이상 정회원은 부조금 납부의무를 면제함



기타 문의 사항은 영락교회 은퇴제직상조회 수납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08시~16시까지 ☎ 02)2280~0238, 간사: 권철 안수집사 010-5339-5861>

3월 목회력

5일(금)	연합 및 금요권찰공부 상반기 개강
6일(토)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7일(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세례 입교식, 찬양예배 성찬
14일(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제직회
19일(금)	심방준비회
21일(주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21일(주일)~ 4월 30일(금)	전교인 전도기간
26일(금)	구역장 대회
28일(주일)	종려주일, 다음세대 기도회, 사회봉사주일, 새가족환영회
29일(월)~4월 3일(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 3월 일정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역사자료실 사료기증 안내 및 실무위원 봉사자 모집

역사자료실에서는 성도님들이 소장하고 계신 역사자료의 기증과 사료정리 작업에 함께 참여할 실무위원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료기증 안내

교회 발행 도서/간행물, 제직부서의 정기 간행물, 교회학교 및 교회 교육자료, 선교 행사 자료 및 간행물, 찬양대 간행물, 설교문 및 설교테이프, 사진, 영상자료 등 교회역사에 중요한 자료

2. 실무위원 봉사자 모집

교회역사 및 교회사료 정리, 자료수집에 관심 있는 교인

문의 : 역사자료실 ☎02)2280-0357

편집장 레터

이번 3월호는 사순절 특집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사순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말씀을 통한 묵상으로 경건생활을 돕고자 하는 한편, 주님의 수난과 부활을 증거하는 영화들을 소개하면서 문화활동을 통해서도 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글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3·1절을 맞이하여 3·1 독립운동과 제암리만행 등을 세계에 알린 공적으로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리우는 외국인 선교사를 소개하는 글도 게재하였습니다.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에서 펼쳐진 선교사역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우리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선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또 이번 호부터 새로운 기획으로 '말씀대로 365일' 성경통독 프로그램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독 관련 성경

지도 및 성경유적지의 사진도 실었습니다. 앞으로 여러 차례 통독진도와 맞춘 도움 자료를 게재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저희 편집진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만남』에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만남』이 성도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면서 스스로 변화하며 성도님들에게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격려와 고언(苦言)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달에는 부활절 특집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편집장 김기선



2021년 3월호 통권 565호

발행 2021. 3. 1.

발행인 김운성

편집인 양지청

편집위원 김기선 박선이 김갑수 김경옥
김창섭 김호진 나광호 안동현
안하운 우대권 유혜정 이준영
임대현 장덕진 정용성 최윤미

교열 계영희 이광미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표로 33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디자인 design D.I



스마트한 e세상, 웹진 만남

인터넷 브라우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주소창 www.youngnakmn.net



월간「만남」웹진
홈페이지



월간「만남」앱
안드로이드용



월간「만남」앱
아이폰용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신명기 32:49)

이스라엘 성경 지역 사진(느보산, 모압평지, 여리고, 길갈)을 통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의 지리적 정보를 살펴보면,
성경(말씀대로 365)을 보다 입체적으로 짚어 볼수 있을 것이다.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서 지난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마치게 되었다.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히브리어-비탈지다)산’과 동일한 ‘느보산(해발 835m)’은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나안땅을 바라보며 숨진 곳이다(신명기 34:8).

이제는 모세를 대신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으며, 그들은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여호수아1~3). 여호수아가 앞장서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에서 가까운 북쪽 길갈에 진을 쳤다(4).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행했고 가나안 입성후 첫 유월절을 지켰다(5).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고(6),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12지파의 영역이 분배되는 역사가 진행되었다.

영락화랑

채찍에 맞는 그리스도 (Flagellation of Christ)



피터 폴 루벤스, 세인트 폴스 교회(벨기에 앤트워프 소재), 37.4×35.1cm

2021년 사순절은 2월 17일(재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월 3일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이다.

루벤스의 십자가 수난 걸작 중 하나인 이 작품은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려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고난 겪으시는 모습을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는 작품이다.